

민주시민교육 연구보고서 2020

# 부산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Korea Democracy Foundation

민주시민교육 연구보고서 2020

## 부산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

- 연구책임자 **진시원** | 부산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김주영** | 동서대학교 관광학부 강사  
**서희원** |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  
**이동문** |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연구보조원 **이슬기** | 시민교육실험실 '해' 연구원

연구수행기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본 연구보고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연구용역 과제로 제출되었으며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목차

<b>I. 서론</b> .....	<b>1</b>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	5
3. 선행연구 검토 .....	6
<b>II. 연구방법 및 진행과정</b> .....	<b>9</b>
1. 연구방법 .....	11
2. 연구진행 과정 .....	13
<b>III.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b> .....	<b>17</b>
1. 부산 지역 민주시민교육 현황 .....	19
1) 부산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현황 .....	19
2) 부산 지역 민주시민교육 기초현황 .....	21
2.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와 내용 .....	26
1)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개념) .....	26
2) 민주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민주시민교육의 내용) .....	28
3) 민주시민교육의 범위 .....	32
<b>IV.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요소</b> .....	<b>37</b>
1.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 .....	39
1)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 문제 .....	39

2) 강사문제 .....	40
3) 참여시간 부족 .....	43
4) 교육방법의 문제 .....	44
5)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 .....	45
2.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요소 .....	52
1) 민주시민교육의 일상화 .....	52
2) 접근성 확보 .....	53
3)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참여기회 .....	53
4) 친밀함과 감성 자극 환경 조성 .....	55
5) 홍보 .....	57
6) 강사풀 확보와 강사역량 강화 .....	58
7) 자격증(이수증) .....	59
8) 정부의 지원 .....	61
9) 매개 기관의 필요성 .....	62
3. 유형 분류 제안 .....	64
1) 유형 분류에 대한 비판적 입장 .....	64
2) 부산의 유형 제안 : 민주시민교육 운영 전략에 따른 시민역량 분류 .....	66
<b>V. 정책 제언 .....</b>	<b>71</b>
<b>참고문헌 .....</b>	<b>75</b>
<b>부록 1. 부산 지역 민주시민교육 기본운영 현황조사 설문지(구글폼 이용) .....</b>	<b>77</b>
<b>부록 2. 심층인터뷰 질문지-진행강사 .....</b>	<b>80</b>
<b>부록 3. 심층인터뷰 질문지-참여자 .....</b>	<b>84</b>

## 표 차례

[표 1] 연구 참여자 .....	12
[표 2] 질문지 예시 .....	14

## 그림 차례

[그림 1] 교육 영역 .....	21
[그림 2] 프로그램의 목적 .....	22
[그림 3] 교육 방법 .....	23
[그림 4]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수 .....	23
[그림 5] 참여 인원 .....	24
[그림 6] 교육 장소 .....	25
[그림 7] 민주시민교육 운영 전략에 따른 시민역량 분류 .....	66

## 인터뷰 차례

<인터뷰> 1 민주시민교육-1 .....	26
<인터뷰> 2 민주시민교육-2 .....	27
<인터뷰> 3 민주주의의 의미 .....	29
<인터뷰> 4 시민의 의미 .....	30
<인터뷰> 5 민주시민교육의 의미 .....	31
<인터뷰> 6 민주시민교육의 범위-1 .....	32

## CONTENTS

<인터뷰> 7 민주시민교육의 범위-2 .....	33
<인터뷰> 8 민주시민교육의 범위-3 .....	33
<인터뷰> 9 민주시민교육의 범위-4 .....	34
<인터뷰> 10 민주시민교육의 범위-5 .....	35
<인터뷰> 11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 문제-1 .....	39
<인터뷰> 12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 문제-2 .....	40
<인터뷰> 13 민주시민교육의 강사 문제-1 .....	41
<인터뷰> 14 민주시민교육의 강사 문제-2 .....	41
<인터뷰> 15 민주시민교육의 강사 문제-3 .....	42
<인터뷰> 16 민주시민교육의 강사 문제-4 .....	43
<인터뷰> 17 민주시민교육의 참여시간 부족 문제 .....	43
<인터뷰> 18 민주시민교육의 방법 문제-1 .....	44
<인터뷰> 19 민주시민교육의 방법 문제-2 .....	45
<인터뷰> 20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1 .....	46
<인터뷰> 21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2 .....	47
<인터뷰> 22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3 .....	48
<인터뷰> 23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4 .....	48
<인터뷰> 24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5 .....	49
<인터뷰> 2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6 .....	50
<인터뷰> 26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7 .....	51
<인터뷰> 27 민주시민교육의 일상화 .....	52

---



<인터뷰> 28 민주시민교육의 인프라-접근성 확보 .....	53
<인터뷰> 29 민주시민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1 .....	54
<인터뷰> 30 민주시민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2 .....	54
<인터뷰> 31 민주시민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3 .....	55
<인터뷰> 32 민주시민교육의 교육 환경-친밀한 교육 공간-1 .....	55
<인터뷰> 33 민주시민교육의 교육 환경-친밀한 교육 공간-2 .....	57
<인터뷰> 34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홍보 .....	57
<인터뷰> 35 민주시민교육 강사 역량-1 .....	58
<인터뷰> 36 민주시민교육 강사 역량-2 .....	59
<인터뷰> 37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자격증(이수증)-1 .....	59
<인터뷰> 38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자격증(이수증)-2 .....	60
<인터뷰> 39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1 .....	61
<인터뷰> 40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2 .....	62
<인터뷰> 41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매개 기관 .....	62
<인터뷰> 42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진에 신뢰 .....	65
<인터뷰> 43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민 역량-1 .....	68
<인터뷰> 44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민 역량-2 .....	68
<인터뷰> 45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민 역량-2 .....	69
<인터뷰> 46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민 역량-3 .....	70



# 부산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Korea Democracy Foundation

## I. 서론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민주시민교육의 보편적 요소는 시민을 주권자로서 정치적 상황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가지게 하는 것, 시민으로 하여금 비판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것, 시민을 자율적이고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현실 상황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기르기 위한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게 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포착하여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성과 공동체 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종기 외, 2019, 9~10)

그런데 이와 같은 개념적 규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니다.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내용, 범위 등에 대해 우리 사회가 충분히 논의했다거나 연구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노력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그러한 연구와 노력은 주로 이념과 제도에 치우쳤던 것이 사실이다.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실천하는 과정 그 자체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한국 시민단체의 논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우리 사회의 현상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 내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 대부분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는 점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필요성을 제기하는 일이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비통한 심정으로 목격하고 있기도 하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제도와 이념, 시스템으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맞닥뜨리고 있다는 점을 이제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

---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다양한 공간과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내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즉, 민주시민교육의 사회적 합의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민주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는 그러한 공론화 과정에서 중요한 구실을 형성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부산 지역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정착된 한국의 형식적 대의제 민주주의가 시민 참여와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정착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1월1일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조례’가 통과되었고, 1월 28일에는 부산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4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이하 ‘부산민시넷’)를 창립하였다. 부산민시넷은 부산 지역 국민운동 단체와 함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며,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벌여왔으며,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양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서 확인한 것은 부산 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내용, 범위를 규정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에 수행하는 <부산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이하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기획·실무자와 프로그램 진행 강사,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내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주요한 성과 도출을 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부산 지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2020년도에 다른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연구들과 함께 한국 사회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내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다. 연구 제안서 작성과 함께 연구진이 구성되었고, 상호 협력 하에 연구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이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연구에 많은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심층 인터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연구의 특성 때문에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국민운동 3개 단체와 지속적인 협력 속에 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민시넷은 부산광역시 새마을회와 함께 꾸준히 모임을 진행하였고, 부산민시넷 회원 단체와도 계속 소통하면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해 나갔다. 하지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자유총연맹은 내부 사정을 들어 결국 이번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다만 2019년, 2020년 이어진 부산민시넷과 국민운동 3단체의 소통 노력은 함부로 폄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021년에는 소통의 폭을 더욱 넓히는 분명한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더 폭을 넓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부산민시넷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부산민시넷이 가진 한계 대부분은 본 연구의 한계로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공교육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부산교육청과는 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이나 방향성의 공유가 이루어지지는 못 했다. 다만 현 부산교육감은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이 부산민시넷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이를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 학생도 시민이고, 학생이 공교육의 영역 밖에서 활동하게 될 때는 부산민시넷과 만나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공교육과 부산민시넷의 연계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연구에 실제로 반영하지는 못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

### 3. 선행연구 검토

우리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연구는 1995년 5.31 교육 개혁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칭을 공식화하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7년 교육부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의 정책연구를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전보다 3-5배 이상 많아지고 있다.(강민경, 2020) 이들 연구들은 주로 ‘현황조사를 비롯하여 내용과 방법, 제도화’(정원규 외, 2019)를 다루고 있다.

먼저 다양한 측면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들이 다수다. 장은주(2017)는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시민주체의 형성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이동운(2020)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과 공고화에 있어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담고 있으며, 특히 실질적 민주주의를 담보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김민호(2011)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지역사회 시민의 자질에 대한 유형 구분을 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당위적인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민에 대한 논의들을 주요하게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 영역별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나 과제 등을 다루고 있는 논문들이 다수 있다. 김아영(2020)은 가부장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과제를 다루며, 김용창(2004)은 인권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이윤정(2001)은 미국 시민교육 사례를 통해 문화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시민교육을 살펴보고 있다. 평생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를 담는 논문들도 여럿이다. 안승대(2017)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평생교육의 재정립을 시도하고 있다. 신미식(2011)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하고 있다. 심성보(2017)는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민주시민교육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영역을 아울러서 연구가 이루어졌다기보다 분과 학문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다루고 있다.

다음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법제도적인 측면과 제도화와 관련된 연구이다.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에 대한 조사와 제도화를 위한 논의들을 다루는 연구(신두철, 2010)와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시기별 역사적 구분과 제도화 과정을 다루면서 현재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주체와 내용 및 원칙, 기존 법과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제기되는 쟁점을 제시하는 연구(정하윤, 2014; 정하윤, 2015)가 있다. 원준호(2019)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민주시민교육 조례제정에서 제기되는 쟁점에 대한 내용과 독일 사례를 통해 이들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장은주(2019)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양흥권(2014)은 독일사례를 바탕으로 추진체계, 지원체계와 전달체계 그리고 교육내용과 교육 방법, 담당인력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에서 제도화될 경우 이상적인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시민역량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다루고 있는 논문들이 있다. 장준호(2019)는 시민교육의 목표를 “인간을 공동체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끔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으로서, 기초역량(양심, 공감, 생각[이성], 표현[감정], 호기심)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시민역량(가치역량, 관계역량, 사고역량, 소통역량, 학습역량)으로 발전시켜 민주 시민과 세계시민이 되게끔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민 역량을 기초역량과 시민역량으로 구성하여, 그 역량의 증대를 시민교육의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그 외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연구되는 논문들(서재복, 송태규, 임명희, 2020; 양해성, 2020)이 다수 있다. 최숙기(2019)의 논문은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제기하면서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청소년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현재 매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현실에서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측면에서 고민되어야 할 것이 많은 것으로 보았다. 안정임, 최진호(2020)는 디지털 시민성 역량이 민주적 시민의식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대별로 분석하였다. 시민역량과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적 정립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의 수준, 학교 현장 선생님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식(김영석, 2019), 학생들에게 필요한 민주시민교육의 영역,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학교 교과목에 대한 내용 분석(박상영, 2020), 수업 유형이나 교수학습(장수빈, 2018; 허영식, 정창화, 2020) 등을 다루고 있다.

지역에서의 민주시민교육 현황 조사 및 분석에 대한 논의들은 아직 미미하다.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중심이다. 최병덕, 채장수(2017)는 대구 지역 시민교육의 현황 파악과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사례를 분석하고

---

있다.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연구는 2019년도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공모 사업으로 추진한 연구인데, 「2019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보고서」가 그 결과물이다. 이 보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유형 분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민주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유형 분류의 검증을 통해 유형 분류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함께 제시하려 노력했다.

# 부산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Korea Democracy Foundation

## II. 연구 방법 및 진행 과정



## II. 연구방법 및 진행과정

### 1. 연구방법

부산 지역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가 거의 초기인 상황에서 양적 분석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조사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양적 분석은 전체적인 경향과 변화의 패턴 등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개별 행위자들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부재한 상황에서 최소한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 행위자들에게 민주 시민교육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 생각과 느낌, 경험들을 알기’(윤택림, 2013: 24)위해서는 질적 연구가 갖는 장점이 크다.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실제 민주 시민교육을 어떻게 경험하고 이해하는지를 그들의 시각에서 관찰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경험들을 토대로 귀납적으로 합의 가능한 민주 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도출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연구방법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거나<sup>1)</sup>,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활용하였다. 이들 방법을 통해 실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해하고 있는가, 참여자들이 이해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참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 방법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와 진행강사는 심층면접으로, 기획·실무자는 초점집단면접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은 특정 목적과 주제에 초점을 맞춰 토론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실제 시민단체에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이들이 공유하는 정도를 파악, 어느 정도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1)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진행되는 민주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전에 경험했던 프로그램 참여자들도 일부 있었다.

[표 1] 연구 참여자

연번	구분	참여 시기	참여방식	연번	구분	참여 시기	참여방식
1	진행강사	2020년 8월	심층면접	15	참여자	2020년 9월	심층면접
2	참여자	2020년 8월	심층면접	16	진행강사	2020년 9월	심층면접
3	참여자	2020년 8월	심층면접	17	진행강사	2020년 9월	심층면접
4	참여자	2020년 8월	심층면접	18	참여자	2020년 9월	심층면접
5	진행강사	2020년 8월	심층면접	19	진행강사	2020년 10월	심층면접
	기획·실무자	2020년 9월	FGI	20	진행강사	2020년 10월	심층면접
6	진행강사	2020년 8월	심층면접	21	진행강사	2020년 10월	심층면접
7	진행강사	2020년 8월	심층면접	22	기획·실무자	2020년 9월	FGI
8	진행강사	2020년 8월	심층면접	23	기획·실무자	2020년 9월	FGI
9	진행강사	2020년 8월	심층면접	24	기획·실무자	2020년 9월	FGI
10	참여자	2020년 8월	심층면접	25	기획·실무자	2020년 9월	FGI
11	진행강사	2020년 8월	심층면접	26	기획·실무자	2020년 9월	FGI
12	참여자	2020년 8월	심층면접	27	기획·실무자	2020년 9월	FGI
13	참여자	2020년 9월	심층면접	28	기획·실무자	2020년 9월	FGI
14	참여자	2020년 9월	심층면접	29	기획·실무자	2020년 9월	FGI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이론적 코딩 및 담론분석을 부분적으로 적용했다. 코딩은 자료를 분해하거나, 개념화하거나, 새롭게 정리하는 등 다양한 작업들을 총칭한다(Strauss & Corbin, 1990). 코딩과정은 텍스트에서 시작되어 추상화 단계를 거쳐 이러한 것을 일반적 개념으로 범주화하는 것으로 각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정교하게 가다듬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각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네트워크화’ 하는 것을 포함한다. 담론분석 또한 자료의 레퍼토리를 분석 및 해석하는 것이다. 즉 어떤 의미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련의 공식화된 진술을 통해 자아, 행위, 사회구조 등을 분석하고 다양한 개념으로 드러내는 것이다(Potter & Wetherell, 1998). 연구자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활성화 요소 등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이들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함께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 외 이 연구는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 면접 질문의 항목과 그 의미 등이 연구 참여자에게 불편한 감정으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불쾌감을 경험하였다면 즉시 면담을 중지할 수 있음을 알렸다. 동시에 질문에 관해 언제든 무응답 또는 회피, 침묵 등을 할 수 있으며, 이것 또한 응답의 다양한 표현임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예를 들면, 사례 1, 사례 2 등으로 표기할 것이며, 참여자의 소속이 드러나는 단어나 문장은 언급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였다. 이후 인터뷰 자료 및 개인정보 파일 등은 연구가 완료됨과 동시에 폐기할 예정이다.

## 2. 연구진행 과정

먼저 부산민시넷 회원단체들을 대상으로 구글 설문지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명명하는, 적어도 단체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현황을 조사하였다. 기초현황을 바탕으로 부산민시넷 회원 50개 단체들 중에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단체들 중에서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였다. 여성, 인권, 환경, 문화예술 등 주제별로 그룹화하고, 가능한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그리고 중간지원 조직과 국민운동본부의 단체도 대상에 포함하였다. 총 10개의 단체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단체의 경우 같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진행강사와 참여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질문지 구성은 정원규 외(2019)의 질문지 문항과 다른 여러 문헌 등을 검토하여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내용과 범위,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 진행 방식, 프로그램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 참여자들의 반응 그리고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단체에서의 운영방식 등을 질문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미리 주어진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로 작성된 질문의 순서에 따라 응답자의 자유로운 답을 듣는 형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2] 질문지 예시

**단체**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주제 및 교육형태,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 단체에 언제,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었나요?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과 일반교육프로그램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보나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프로그램 운영상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참여자/진행자 관계**

참여자/진행자 관계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진행강사와 그렇지 않은 진행강사는 어떤 유형인가요?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외에 개인적으로 모임을 갖나요?

**효과**

기획의도에 따른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나요?  
개인적으로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진행 방법은 진행강사와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심층면접, 단체에서 기획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FGI 형식을 적용하였다. 심층면접의 경우 응답자에 따라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30분의 시간 동안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되는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였다. FGI는 서로 다른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2회 실시하였으며, 대략 3시간 가량 진행하였다. 단체의 실무자들의 경우 같은 시간을 낸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단체에 대한 소개, 민주시민교육 전담 부서의 존재 유무, 담당자 인원 및 경력 등 단체와 관련되는 내용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였다.

8월 초중반에 인터뷰 본격 시작하였으나 코로나 19의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9월 중순 이후로 심층면접이 이루어졌으며, FGI는 9월 중순 이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이 이루어진 장소는 활동가들의 경우 단체 사무실 등에서 이루어졌으며, 인터뷰 장소를 잡기 어려운 경우 카페에서 진행된 경우도 있었다.



응답자 특징을 살펴보면 진행강사는 대부분 활동가들이다. 참여자들 역시 활동가이거나 시민단체의 회원들이 많았다. 이들 참여자의 경우 민주시민교육을 듣고 나서 시민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을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여성들로 현재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대상자들이 여성이라는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기획·실무자의 경우 연령대는 30대와 40대가 대부분이었다. 참여자 및 진행강사의 경우 40대와 50대가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 30대, 20대, 60대로 이루어져 있다.



# 부산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Korea Democracy Foundation

## Ⅲ.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



### Ⅲ.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

#### 1. 부산 지역 민주시민교육 현황

##### 1) 부산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현황

부산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지역의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2018년 5월 시민단체들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19년 1월 28일 부산민시넷이 창립되었다. 그 과정에서 부산민시넷은 지방의회에서의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지방의회 역시 공감하면서 2019년 1월 1일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sup>2)</sup>가 제정되었다.

48개 회원 단체에서 시작한 부산민시넷은 현재 50개 단체로 확장되었고, 회원 단체의 회비와 시민의 후원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의 기관 공모 사업 등에 기대어 사업을 수행해 왔다. 더불어 부산시 주무부서(행정자치국 교육협력과)와 꾸준히 협력하여 부산시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민간위탁을 추진하였고<sup>3)</sup>,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부산시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였다.

- 2)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이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갖추어야 할 지식·가치·태도 등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1. 대한민국헌법과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따른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과 갈등조정 등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공감,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 등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방법’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민간위탁 추진은 다양한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서울 지역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 이유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부산민시넷과 같은 각 지역 민시넷은 비교적 신생 단체로서 민간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여건을 갖추지 못한 현실적 한계를 가진 곳이 많다. 즉 민시넷의 사업 수행 역량보다는 행정적인 판단에 따라 공기관(특히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부산에서도 공기관은 민주시민교육의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춘 곳이 없지만, 사업 관리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사업 추진 기관으로 결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역량을 갖추지 못한 공기관에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부산 지역의 경우, 그 역량을 갖추고 있는 부산민시넷이 부산시의 직접 지원이 아니라 간접 지원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고 만다.

---

2020년 2월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형식의 제2회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비영리기관 등록의 요건을 갖추었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시, 부산시의회와 지난한 협력 과정을 거쳐 2021년도 부산시 민주시민교육 사업 ‘민간위탁’을 관철시켰고, 4억5천만원의 예산안도 의회를 통해 편성되었다.

지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부산민시넷의 활동은 부산민주시민교육의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집결된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부산민시넷 주도로 2019년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와 ‘부산 민주시민교육 박람회’, ‘영남권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진행과정은 부산민시넷 회원단체사이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바탕이 되었으며, 네트워크 조직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와 지속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보여주는 측면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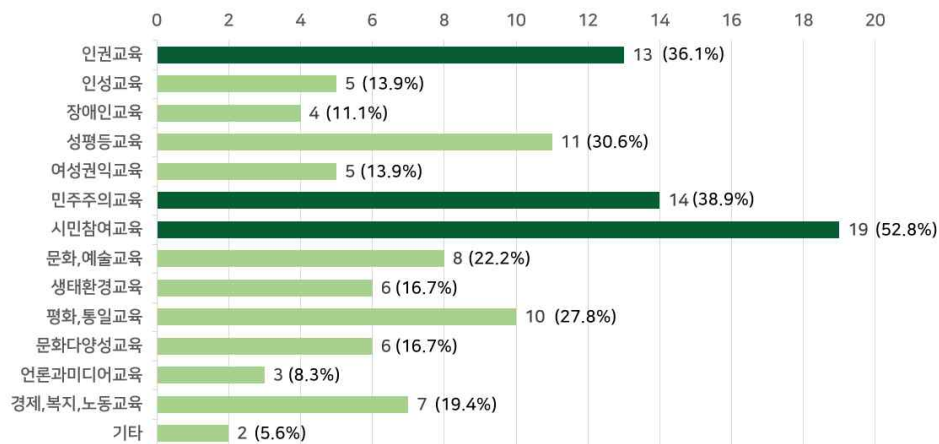
부산 민주시민교육 박람회는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수행 단체가 처음으로 함께 어울려 교류, 소통함으로써 부산민시넷 회원 단체들 사이의 연대감을 구축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부산민시넷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사업을 수행하였다. 부산민시넷과 국민운동 3단체가 협력하여 수행한 공론화 사업을 통해 2019년에는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원칙에 대해 합의하였고, 2020년에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실천과제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실태 조사를 질적 연구라는 방법으로 수행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내용, 범위를 시민과 시민단체가 공감할 수 있는 폭넓은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 2) 부산 지역 민주시민교육 기초현황

부산 민주시민교육의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소속 회원 단체를 대상으로 기초현황을 조사하였다.<sup>4)</sup>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체 회원 50개 단체 중 36개 단체가 응답하였다. 주로 단체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되는 업무를 보는 실무자들이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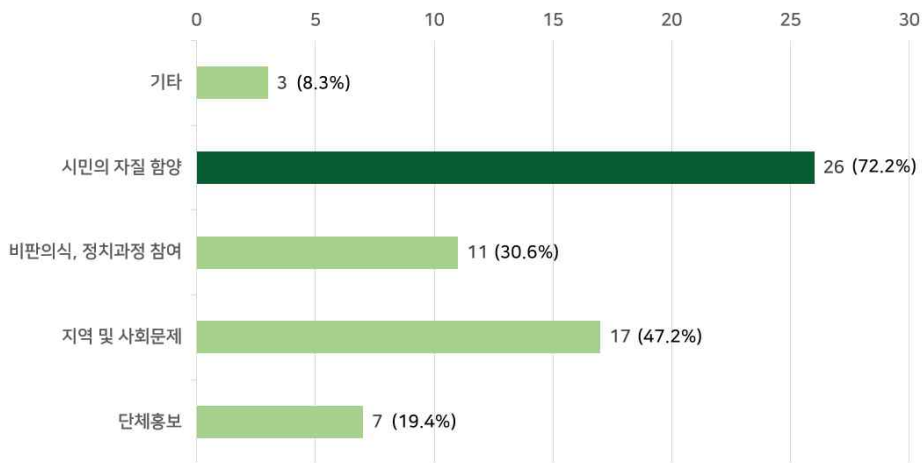
먼저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의 주요 교육 영역(중복응답가능, 36개 단체 응답)은 시민 참여교육, 민주주의교육, 인권교육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교육 영역은 부산 민시넷 회원단체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민시넷 회원단체의 경우 인권,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성격을 지닌다고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는 단체의 비율이 교육 영역의 비율과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김종기 외, 2019: 58)의 조사결과와 유사하다. 2019년 조사에서는 부산광역시 자치구 민주시민교육 운영 단체 담당자들을 대상들(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당시의 응답(중복응답가능)에서는 인권교육(22, 41.5%), 시민참여교육(21, 39.6%), 민주주의교육(21, 39.6%)의 순으로 나왔다.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율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앞의 3개 영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1] 교육 영역

4) 설문조사는 2019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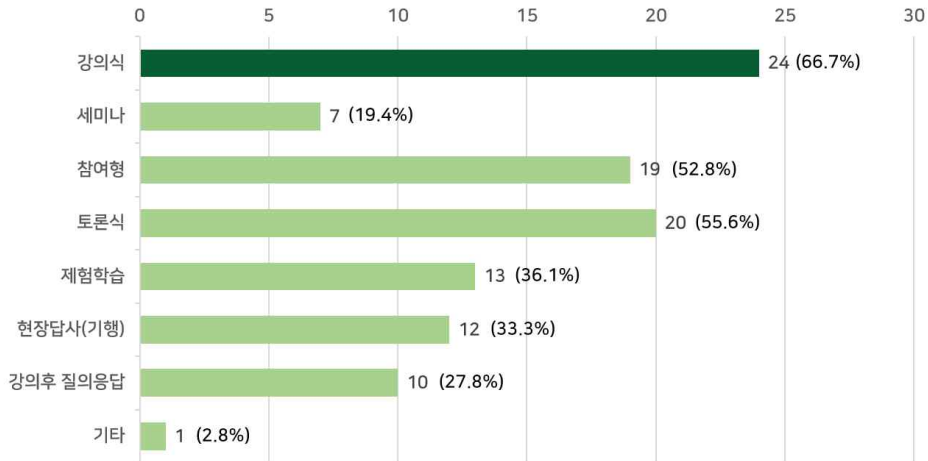
이러한 단체들이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중복응답 가능, 36개 단체 응답)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문항은 민주사회를 위하여 시민이 갖추어야 할 지식·가치·태도 등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26개, 72.2%)이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지역사회 및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17개, 47.2%)으로 나왔다. 그리고 비판의식과 책임감을 높여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11개, 30.6%), 단체의 활동을 알리거나 이해를 위한 교육(7개, 19.4%) 순으로 나왔다. 기타에는 역량 강화, 미래세대의 제대로 된 통일관 확립을 위한 교육, 주민조직가교육·주민지도자교육을 각각 하나씩 직접 작성하였다.



[그림 2] 프로그램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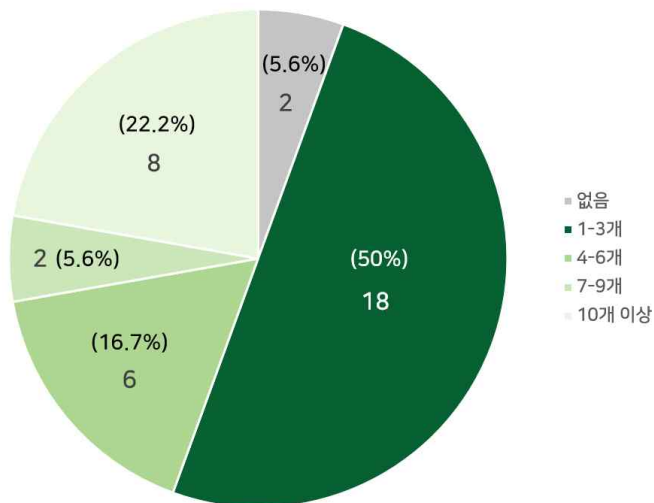
교육방법(중복응답 가능, 36개 단체 응답)은 강의식이 가장 높지만, 토론식과 참여형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체험학습, 현장 답사(기행)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징적인 점은 기타의 경우 출판이었다. 출판도 민주시민교육의 한 방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시민교육을 상당히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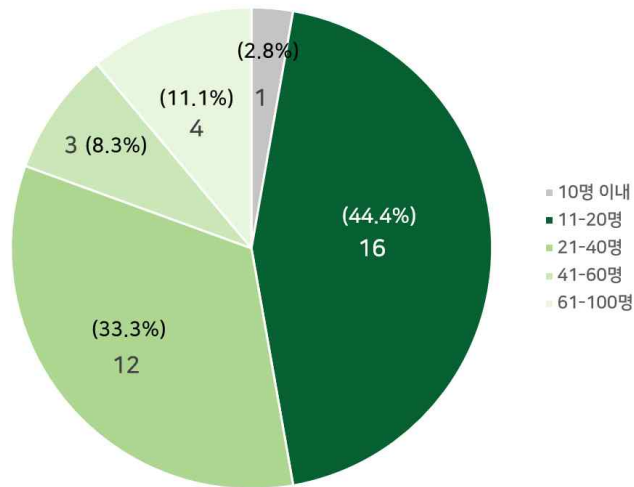
[그림 3] 교육 방법

2019년 진행했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수는 단체별로 1~3개가 절반을 차지하였다. 민시넷 회원단체의 경우 대체로 3개 이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1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단체가 8개로 22.2%를 차지하였다. 반면 민시넷 회원단체이지만 2019년에 실시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없다고 응답한 단체도 2개 단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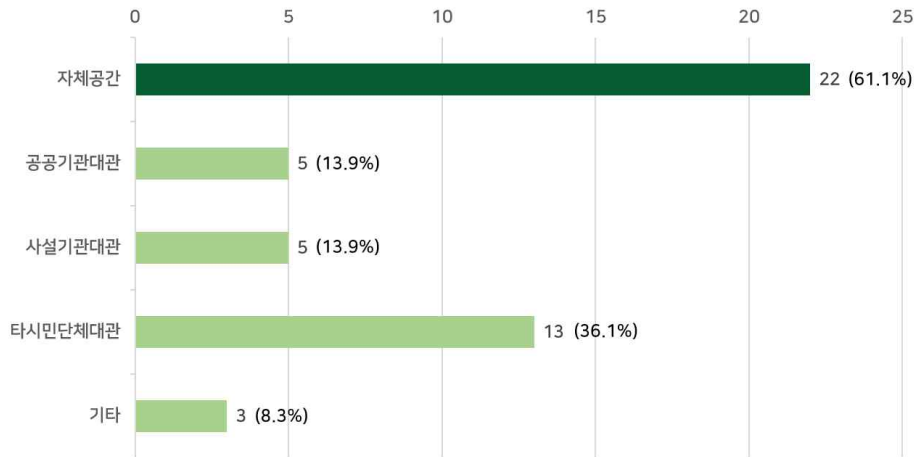
[그림 4]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수

단체의 교육 프로그램 1회당 참여인원은 11~20명 내외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21~40명 순이다.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이 40명 이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심층면접 과정에서 참여인원을 질문했을 때 대체로 20명 내외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림 5] 참여 인원

교육 장소에 대한 질문(중복응답 가능, 36개 단체 응답)에서는 자체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비율이 높게 나왔다. 다음으로는 다른 시민사회단체의 시설 대관이 다음으로 높게 나왔다. 반면 공공기관 대관이나 사설기관 대관은 그에 반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심층면접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경우 대중교통과 같은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양호하지만, 현실적인 이유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과 상통하고 있다.



[그림 6] 교육 장소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보면 부산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소속 단체의 경우 1년에 대략 1~3개 정도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당 참여인원은 40명 이내의 인원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육영역으로는 시민참여, 민주주의, 인권교육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2.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와 내용

### 1)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개념)

민주화 이후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대부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시민교육, 정치교육 등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사람에 따라 선호되는 것이 다르다. 이는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내용이나 범위를 명확하게 합의하지 못한 것과도 관련된다.

연구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았음에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일부 응답자들은 용어 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표현하였다. 사례6 응답자의 경우 지역에서 공원 이름을 둘러싼 갈등을 경험하면서 ‘민주’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담은 사례23 응답자의 내용과 관련된다. 사례23 응답자의 경우 민주시민교육을 정치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그가 보기에 정치교육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두 응답자의 경우 모두 민주시민교육이 정치적인 것과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인터뷰> 1 민주시민교육-1

민주시민하니까 진보적이고 내가 그렇게 느껴져... 그니까 민주를 꼭 굳이 여기 민주공원도 그래요. 민주라는게 들어가 가지고 중앙공원<sup>5)</sup>으로도 바뀌고 정권에 따라서 막 이렇게 되거든요.

(사례6)

꺼려하는 용어가 정치교육이 있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지? 보수 말고 진보세력이 하는 정치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어쨌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본질적인 핵심은 정치교육이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그것을 정치교육이라고 하면 뭐 좌파, 빨갱이 이렇게 하면서 몰아버리니까 그것(정치교육)을 꺼려하거든요.

(사례23)

그니까 이것도 사실은 언어가 왜곡된 거죠... 서양에서는 이념 상관없이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건

데 이 부분에는 민주 자를 안 붙이면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주의와 독재문제들과 싸웠던, 역사적 문제를 새긴다는 의미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은 의미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례8)

이렇게 한편으로는 ‘민주’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한 불편함,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한국적인 맥락이 있다는 것을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통해 한국이라는 공간 속에서 어떤 역사적 경험이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시민교육, 정치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어떤 용어를 사용할 것인가는 결국 사회마다 서로 다른 시간의 경과를 거치면서 사람들에게 수용되는 맥락 속에서 용어의 수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인터뷰> 2 민주시민교육-2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 그 단어로 받아들여지는 어감을 되게 불편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딱딱한 거야, 딱딱하고 그다음 이 말 자체가 상당히 계몽적인 것도 포함할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민주시민교육,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접근할 수 있는 흥미도 있겠습니다만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방도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례22)

... 어떤 때는 느낌이 민주시민이라거나 민주주의라고 하거나 했을 때 저에게 약간 답답한 느낌도 있어요. 약간 한물간 것 같은 느낌, 너무 민주라는 표현이... 예전 세대들이 향유하고... 그런게 있다보니 민주시민이란게 그냥 좋은 느낌이긴 한데, 근데 그렇게 이후에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당신이 민주시민이 되어야 해요, 사회에서 역할을 해야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당신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권리를 더 찾도록 해줄 거예요라고 하기에 이게 과연 좋은 메리트가 있는 단어일까에 대한 고민을...

- 5) 지금의 중앙공원은 1986년 과거의 대청공원과 대신공원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을 현재의 명칭으로 통합·변경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9년 민주항쟁기념관이 중앙공원내에 개관하면서 그 일대를 민주공원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명칭문제는 사실 버스정류장의 이름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버스정류장은 민주공원이었다. 2009년 정권이 바뀌면서 지역의 일부 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하면서 개정을 요구하면서 정치적 문제로 제기된 것이다.

사람들에게 박혀있는 이미지가 민주주의나 민주시민 이렇게 하면 민주화 세대의 것 같은 느낌이 각인 되어 있는 게 큰 거예요. 지금 현재 민주시민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 그래서 그들이 고민해서 만든 커리큘럼들,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분들이 저희 또래라기보단 민주시민교육 필요한데 필요해서 뭔가 제도적으로도 민주시민교육이란 걸 넣고 요구해서 따오고 만들어 낸 것이기도 한데 이것이 모든 세대에게 적절한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건 조금...

이 개념은 아직 우리에게 모호하거나 너무 각인되어있는 다른 이미지가 있고 하니까 이 안에서 오는 혼란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교육하려 하는 대상이 그냥 시민이라고 너무 뭉뚱그려져 있다보니 그 안에는 다양하고 세대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정말 지금은 다양하잖아요. 그냥 다 하나하나 개인처럼 보여질 정도로 그랬을 때에 교육대상자를 민주시민이라는 표현으로 묶을 수 있을까까지 다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사례19)

사례22 응답자의 경우 민주시민교육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용어에 대해 고민했다고 답하였다. 사회가 변화되었고, 젊은 세대가 민주주의라는 의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식 역시나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일 뿐 아니라 아직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다양한 것에서 기인한다. 그런 점에서 사례19 응답자 역시 ‘민주’라는 단어가 민주화 세대의 전유물처럼 느껴지는 경험과 개념의 모호성 등에 대해 우려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민주시민교육으로는 다양한 젊은 세대들에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 2) 민주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민주주의와 시민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민주시민교육에서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인데다, 시민이라는 개념도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가 무엇인가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바로 이런 문제로 인해 학자마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개념을 다양하게 정의하는 것이다.

먼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다양한 차원에서 응답들이 이루어졌다. 정치 제도적인 차원으로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뽑는 것’, ‘갈등을 해결하는 의결구조’로 민주

주의를 이해하는 방식에서부터 포괄적으로 ‘삶의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응답자들이 있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폭은 아주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추상적인 수준까지 폭넓다. 아래 응답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층위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다. 그 외 자발성, 권리와 의무 등도 있었다.

<인터뷰> 3 민주주의의 의미

민주주의.. 국민이 주권이.. 주인의식을 주체의식을 가지는.. 그런 어떤 문화? 문화가 정착된 사회? 제도? 뭐 이렇게 민주주의 아닐까요? 민주주의 사회는.. 그런.. 뭐.. 어떤 절대 권력이나 어떤 권위적인 방식의 의사소통이나 아니면 어떤 절대적인 권력의 정치나 그런 어떤 사회문화가 지배되는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모두가 주체적이고 공평하고.. 그런 개인들이 어.. 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이성과 판단을 가지고 뭔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움직여지는 그런 사회체제?

(사례7)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를 주어주는 대신에 그에 따른 책임도 질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례12)

저는 민주주의는 보통은 정치의 형태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다양한 삶의 방식과 정치자체가 삶의 방식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를 관장하고 있는 제도나 그 속에서의 어떤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부르는 게 민주주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어쨌든 시민이 조금 더 이 공동체의 주인으로써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 또 그것을 다 아우르고 있는 정치의 형태가 민주주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례5)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시민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은 다양했다. ‘어떤 사람이 시민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모든 사람’, ‘누구나 다 시민’과 같이 아주 폭넓게 시민을 인정하고 있는 응답이 다수 있었다. 이들의 경우 이주민이나 미등록 이주자의 경우도 ‘같이 어울려 사는 사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시민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딱히 시민으로서 어떤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것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터뷰> 4 시민의 의미

살고 있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민이 되야한다는, 그게 이상적이지 않을까..

.(사례26)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시민, 시민권이란 말은 단순히 투표할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그런게 아니고 내가 역사에 선한 방향에 움직이려고 직접 나선 사람이냐 가만히 있는 사람이냐...참여한 사람을 시민이라고 본다. 단순히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시민이다 말 할 수 있을까

(사례17)

자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저는 그게 시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사례12)

대한민국에서 주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국적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민이죠

(사례18)

반면, 권리와 의무, 책임, 참여, 사회에 대한 기여 등의 자격을 요구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이들은 이주민이나 미등록 이주자 역시 이와 같은 자격조건을 갖춘다면, 국적과는 상관없다고 보는 응답자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응답자도 있었다. 그리고 국적과 같이 법제도적인 자격을 요구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그럼에도 국적과 같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특정 자격조건을 두는 것에 대해 인정한다 해도 ‘응당 인간으로써 누려야할 기본 권리 예를 들면 의료권을 받는다든지 이런 권리들이 그런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어선 안된다’(사례 24)고 보는 응답자가 있었다.

그 외 법제도적인 권리와 다르게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는 주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응답한 사람도 있었다.

응답자들이 민주주의나 시민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는 결국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기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수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 너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와 시민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민주시민교육의 의미 역시 민주주의와 시민의 의미만큼 다양할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먼저 표현상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유사하게 응답하였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폭넓게 의미부여하는 응답 내용이었다. 즉, 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같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교육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시민이 되는 과정, 내가 시민이 되기 위한 모든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다.

<인터뷰> 5 민주시민교육의 의미

상대를..... 음..... 허용하고 알아가는 과정...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잘 살아야 되니까  
(사례3)

시민이 시민으로써 사회속의 존재로서 잘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들리지 않음)시민의 입장에서요 요구되어지는 게 있는 거죠  
(사례27)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능력이 포함된 교육  
(사례26)

그리고 ‘소통’, ‘주장할 수 있는 방법’, ‘자기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을 키워 드리는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배우는’, ‘다름의 인정’ 등의 응답이 있었다. 이들 내용은 사회의 갈등적인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능력으로 이해된다. 너무 다른 사람들과 긴장관계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많은 대화의 과정과 자기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극한 대립으로 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 역시 결국은 사회의 성원으로서 요구되어지는 것들로 이러한 내용들을 민주시민교육에서 다루어주어야 할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타인의 의견을 듣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민주적인 해결방식 등을 담고 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참여’, ‘권리’,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품성 함양’, ‘주권자로서 자기를 표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민주시민교육으로 보았다. 응답자들이 ‘삶의 변화’, ‘보다 나은 생활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개별 성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지에 대한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민주시민교육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본 반면, ‘자기 스스로 발전할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교육’,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응답한 것처럼 개인적인 측면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이해하고 있는 응답자도 있었다.

### 3) 민주시민교육의 범위

민주시민교육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이상의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역시 어려운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포괄적이며, 유동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응답하였다. 포괄적이라는 점에서는 정원규 외(2019)의 연구결과와 상통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유동적으로 봐야한다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나 범위가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가 변화되었으면 그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에 있어서도 시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다.

#### <인터뷰> 6 민주시민교육의 범위-1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이슈들 아니면 새로운 젠더에 대한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안에 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디어 리터러시, 다양성, 뭐 인권감수성, 평화 다 필요할 것 같아요  
(사례27)

지금 계속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런 환경이 바뀌는 거를 트렌드에 맞게, 아니면 시대가 변하는 걸 좀 담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  
(사례6)

카테고리가 전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때 이슈되는 문제들 가장 잘 다루는게 민주시민교육의 역량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코로나19라면 코로나19를 잘 이해하는게 민주시민의 역량에 가장 큰 부분이었잖아요...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난민이 이슈고 이번에 장마, 태풍 이렇게 오면서 환경이 이슈고 그때그때 맞는 이슈들을 잘 반영하고 그런 시대적,... 지금 이슈에 뒤쳐지지 않는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는게 가장 큰 역량이지 않을까  
(사례26)

범위의 포괄성을 알아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안보교육이나 꽃꽂이의 경우 민주시민교육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질문했을 경우,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명시적으로 민주시민교육에 '포함된다 아니다'라고 답하기보다, 어떤 교육 내용을 담을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응답이었다. 다양한 주제나 소재로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지만, 교육 내용에서 있어서 '사회적 지향을 갖는 활동'(정원규 외, 2019: 34)을 가지게 되었을 때 민주시민교육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 7 민주시민교육의 범위-2

해본 적은 없는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안보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근데 제가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민주시민교육에 포함될 수도 있긴 한데 그 안의 커리큘럼에 따라 다를 것 같고 주제만 놓고 봤을 때 포함되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예를 들어 국가 안보를 위해 안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안의 내용은 평화나 시민들이 실제로 국가 안보나 그런 평화의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간다 하면 또 시민교육이 될 수 있겠쥬, 그런데 꽃꽂이는... 그것도 커리큘럼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게끔 잘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하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기엔 약간 그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화훼농가들이 너무 어려워서 화훼농가에 계시는 분을 모시고 팬데믹과 코로나19와 화훼농가의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꽃꽂이를 하면 뭔가 민주시민교육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사례19)

그게 무슨 민주시민교육이야 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중에서 그들이 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서 교육 내용을 뭘로 가지고 있는지 그게 진짜 우리 사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건지 그게 레저나 취미나 이런걸로 빠질 수 있는 건지

(사례5)

넓게 보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하는 도구라고 하면 이게 좋은 도구인 것 같은데 그게 목적이라고 하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목적인지...

(사례15)

물론 안보교육의 경우 국가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영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응답자도 있었다. '나라의 안전'과 관련되는 교육 내용을 다루게 된다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취미교육의 경우도 아니라고 하면서 교육 내용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인터뷰> 8 민주시민교육의 범위-3

안보교육을... 국민들이 할 필요가 있나요 그게?... 안보교육이라는 게 왜... 그 시민들 국민들한테 해야 하는지 사실은 조금 모르겠고... 그거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안보는...

그니까 이 안보라는게... 나라의 안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를 시민이 굳이? 국가가 그걸 책임져야 하는건데...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꽃꽂이 이런 건 민주시민교육? 꽃꽂이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꽃꽂이 교육이나 취미생활교육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교육이 아니고... 하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전 일단 둘 다 아니라고 보고, 안보교육은, 시민교육하고 전혀 상관 없을 거라 보고... 예를 들어 꽃꽂이 교육을 하더라도 꽃을 가지고서 이 꽃은 어떤 상태에서 자라고 왜 선생님이 그 왜 그 숲 해설을 하듯이 네, 자연과 사람이 다르지 않다 그래가지고서 뭔가 사람의 삶과 같이 연계해서 수업을 한다 하면 민주시민교육이 되겠죠. 근데 이게 단순히 꽃을 어떻게 꽃고 한다는 건 기능적인 수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 아니라고 보는 거죠

(사례11)

앞의 (사례19) 응답에서도 나왔을 뿐 아니라, 아래의 응답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안보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교육내용에 따라 충분히 민주시민교육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시민교육의 범위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인터뷰> 9 민주시민교육의 범위-4

안보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안보교육이 통일을 주제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통일을 위한 안보교육은 조금 양해만 해주면 민주시민교육으로...분단된 건 사실이니까...

(사례28)

그런데 이렇게 민주시민교육을 포괄적으로 보게 된다면, 민주시민교육과 일반교육 프로그램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질문을 하였다. 먼저 민주시민교육과 일반교육 프로그램의 차이를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 보는 응답이 있었다. 민주시민교육을 보다 ‘큰 범주’의 교육으로 이해하였다. 어떤 응답자의 경우 ‘민주시민교육은 필수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있었다. 민주시민교육을 다른 교육과의 관련해서 공동체의 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내용이나 방식에서의 차이로 이해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가령 구체적인 응답의 내용들을 보면, ‘자율성’, ‘참여’, ‘교육형식’, ‘행동’, ‘민주적 의사소통’ 등의 교육 내용이나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내용이나 방식에서의 차이를 둔다면, 일반 교육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점은 안보교육이나 꽃꽂이의 경우도 내용적인 측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상당히 폭넓게 이해한다는 점에서 상통한다.

<인터뷰> 10 민주시민교육의 범위-5

차이라기보다는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큰 범주 안에 그 작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라 하면 인권도 민주시민교육일 거고 노동에 대한 것도 환경에 대한 것도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사례15)

어.. 좀 더 자율성..의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어.. 그.. 교육의 방식이라든지.. 이런것들에 있어가지고..

(사례3)

어.....저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냥 수업시간에 수업을 배운다 하더라도 거기에 민주적인 방식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교육에 민주적 방식을 넣어서 교육을 하면 모든게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렇다면은 그 모든 곳에 민주적인 요소를 넣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틀렸으면 틀렸다, 맞았다, 잘 모르면 몰랐다. 상대방에게 확인을 받으면서 어.. 그 사이에 어.. 뭐.. 예를 들어서 토론에 활용되거나 주장에 활용된 이성, 합리성도 교정될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의 의견을 감성도 만들어지고 그 타인에게 폭력을 행하지 않는 다른 방식의 회의 방식이 있다고 하는 몸과 신체와 생활의 변화가 거기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민주시민교육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표현과 수용에 얽힌 이런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례8)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담아야 하며, 범위에 있어서도 포괄적이다.



# 부산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Korea Democracy Foundation

## IV.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요소





## IV.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요소

### 1.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

#### 1)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 문제

먼저 앞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포괄적으로 이해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인가는 여전히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민주시민교육이 제기되었고,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의 역사가 아직 짧다는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호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인터뷰> 11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 문제-1

지금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사례14)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듯한 느낌,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이게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고 모든 곳에서 하고 있지만 딱 뭐냐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교육에 있어서 조금 약점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27)

지금 모호하고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혼란스럽게...네, 그 모든 것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정리되어 있거나 확실하게 컨트롤타워가 있거나 제도화되어 있거나 누군가가 딱 알 수 있는 것처럼 정착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갖다 붙일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

(사례5)

이러한 모호성의 문제는 시민들의 참여에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많이 들어본 것 같지만, 손쉽게 다가가기에는 친숙한 단어나 개념들의 사용이 아닌 것으로 인해 다소 접근하기가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여전히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는 문제이다. 개념적인 문제 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현실적이지 않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나랑 먼 곳에 있는 그런 주제들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 일상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 12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 문제-2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단어가 되어서 들어보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오히려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고무줄에다가 왜곡이 많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교육화라는 엄청 중요한 교육으로서 제시가 되면서 무언가를 제도처럼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하려 하다 보니 그게 오히려 문턱이 높아지는 느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민사회 영역엔 어찌면 많이 있기도 하고 하지만 조금 더 정교해야 하는 이런 목표가 있지만 말했던 것처럼 사회 속에서 그런 상태여서 또 다른 하나의, 잘 넘어가야 할 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례5)

장벽이 높은 것 같아요. 진입장벽이... 다가가기 어렵잖아요. 주제 자체가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하면 뭐 투쟁, 탄압 이렇게 홍보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나랑 먼 곳에 있는 그런 주제들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장벽 자체가 높은 것 같아요

(사례15)

내용은 다 좋거든요. 내용은 다 좋고 굉장히 이상적이고, 그런데 현실하고 동떨어진? 저게 실현 가능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되게 좋은 내용인데 내가 봤을 때는 좀... 음,, 현실적인, 다가오는게 없는거죠... 저게 진짜 가능하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것들?

(사례6)

## 2) 강사문제

먼저,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으로 학자 위주의 강사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에 있어 강사역량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교육의 질에 있어 강사역량이 중요하다. 그런데 강사역량이 반드시 학문적인 역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내용을 보면, 현재 부산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진행에서 학자들이 진행하는 교육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학자 위주의 문제 자체라기보다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보유한 활동가들 역시 강사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현장의 경험을 인정하고 발굴을 통해 보다 다양한 강사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터뷰> 13 민주시민교육의 강사 문제-1

일상생활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여전히 어.. 지식이 있고 배경이 있는 어떤 학식자들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게 참 필요하지 않나... 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례3)

민주시민교육을 열었다 하면 전부 다 학자 위주들이예요. 어디 교수님들이거나...

(사례8)

두 번째가 강사풀 문제이다. 강사풀 문제는 앞에서 제기한 다양한 강사 부족 문제와 관련된다. 강사풀 문제는 먼저 강사 섭외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지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면서 유명 강사를 섭외하고자 하고, 그런 경우 대부분 서울에서 섭외하게 된다. 이 문제는 부산에서 그만큼의 역량을 가진 강사가 없을 수도 있지만, 강사섭외를 하는 측에서 찾지 않거나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바로 단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강사풀이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매번 같은 강사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한 응답자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결과적으로 ‘항상 듣는 사람만 듣’게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인터뷰> 14 민주시민교육의 강사 문제-2

제가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웃음) 어... 그래서 이번에 제가 뭐..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들으면서.. 보통 이제 강사들이 서울 쪽에서 많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어디를 가도 서울에서 뭐 교육을 들어도 그 지역에 있는 강사들.. 그래서 그러면은 서울에서 이루어져도 다른 지역에서 유능한 강사들이 충분히 이게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웃음) 굉장히 모순이긴 한데.. 그런 분들이 섭외될 수 있는데 이런.. 강사 라인들이 참 한계적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개소개 받고 이제 관의, 사실 관성일 수도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라인 이상은 애쓰지도 않고 굳이 발굴하려고도 안하는거예요. 근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능력 있는 강사들이 많

은데.. 더 좋은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틀은 또 관이나 단체에서 깨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례3)

강사섭외하기가, 지역에 있는 강사를 섭외하기가 너무 힘든거예요... 시민들 대상으로 강사진을 부산에서 가급적이면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잘 안되고 발굴이 많이 안 돼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쪽에서 계속 초빙할 수밖에 없을 때 그게 좀 굉장히 안타깝고, 또 사실 우리가 다양한 영역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들을 수도 있는건데, 우리가 활동무대를 벗어나서 그냥 모여서 듣는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자기영역 밖의 것들 체험하거나 경험하지 못하는 문제들, 섞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느끼죠.

(사례24)

강사 분들이 새로운 강사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네는 오픈 마인드고 열렸다고 하지만 새로운 강사진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것도 폐쇄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례12)

세 번째로 강사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콘텐츠 발굴과 같은 경우 대부분 강사들의 개인 역량에 의존하고 있고, 강사마다 실력의 편차가 있는 상황에서 좋은 강사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강사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강의를 이어갈 수 있으며, 그럴 때 전문성을 키워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와 관련된다.

#### <인터뷰> 15 민주시민교육의 강사 문제-3

강사료를 올려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마 힘들 겁니다...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에는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시민강사가 된 사람들에게 어쨌든 최소한의 그런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늘 떠나는 문제를 여전히 담당자는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례28)

수업을 준비하려면 선생님들은 한번 준비한 거 계속 여러 교시 하잖아요. 똑같은 거. 어쨌든 개념이 다른데, 그 시간만 하는 줄 알고 보수책정을 잘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번 강

의 하면 하루에 준하는, 최소 하루에 준하는 보수가 있어야 지속적인 강사 전문성을 살릴수 있어요. 돈이 안 되면 떠나야 해요. 떠나서 전문성 확보가 안돼요.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해 주려면 어느 정도 보수도 따라줘야 하고 시수도 있어야 해요 만들어놔야 해요... 전문강사를 만드는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또 보수교육이라 합니까, 계속적으로 전문성으로 갈 수 있는 계속 있어야 해요.

(사례17)

네 번째로 강사 편향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강사들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강의 내용을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 내용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이 중요하다.

<인터뷰> 16 민주시민교육의 강사 문제-4

민주시민교육 진행자의 약점이, 아까 말씀드렸든 일부 진보진영들은 의외로 가치편향적이예요.. 진행자들이 한쪽으로 생각하는 것, 자기가 편향성이 있단 걸 잘 못 받아들여요.

(사례17)

### 3) 참여시간 부족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참여시간의 확보이다. 지금 워라벨을 주창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서 듣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경우 육아문제가 여성 개인들에게 많이 전가되어 있는 현실에서 듣고 싶은 것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노동시간 문제, 보육 문제 등의 제약이 프로그램 참여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인터뷰> 17 민주시민교육의 참여시간 부족 문제

먹고사는 문제를 해야하니까, 다양한 교육적인 영역에서 시간을 내지 않는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시간적인 부분이라던지 실질적으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잘 활성화 안 될 것 같단 생각이 드는거죠.

(사례22)

네 거기서 뭐 인문학 강의도 하시구요, 드럼 이런것도 악기도 배우게 해주시고, 저는 그 인문학 교육이랑 또 부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게 있거든요. 그건 어디가서도 못 듣는 우리 부산의, 왜 우리가 항구도시인지, 왜 우리 부산 사투리가 이런지, 부산사람들의 특성 왜 이런지 이런 것들 강의 해주는게 있거든요. 되게 재미있어요. 너무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대가 안맞아서...네, 하고는 싶은데 시간, 시간 때문에... 아이를 키우고 있다보니 시간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례15)

일단은 맞벌이 부부라던가 힘드니까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 힘들겠지만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 좋을 것 같아요,,, 자기생활의 환경에 쫓달리니까 그게 문제점도 있겠네요. 아,,, 아이들은 막 키우고 있는 단계면 시간이 없잖아요. 배울 수 없잖아요. 그 문제점 거기에 막 쫓달리다보니까 시간투자도 많이 해야 하고 사람을 키운다는 자체가 개인시간들로 해야 하니까, 그게 문제점인거 같아요. 시간을 쪼개서라도

(사례10)

#### 4) 교육방법의 문제

민주시민교육의 교육방식에 대한 질문에서 다수의 응답자들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이루어진 교육방식이 상당히 일방적이고 권위적이며, 주입식 위주의 지식전달 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나오는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자유로운 토론, 참여 및 체험 방식의 교육방식 등으로 응답하였다.

<인터뷰> 18 민주시민교육의 방법 문제-1

무조건 주입식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듣고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참여를 하는 거도, 참여를 하고 소통을 하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사례6)

당연히, 이제 그건 민주적이어야 된다.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지? 당연히... 수평적이어야죠, 동등하게... 그니까 뭐... 뭘 많이 알고 있고 적게 알고 있어서 내가 가르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수평적이고, 그니까 뭐 토론이나 토의나 같은 수평적인 어떤 대화 방식의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고 보고요.

(사례7)

그런데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닌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실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토론이나 참여의 방식을 이상적인 교육방식으로는 고려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진행강사나 참여자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뷰> 19 민주시민교육의 방법 문제-2

다 힘들어 하시잖아요. 한마디 하라하면 그 다음 주에 안 오고 그러시거든요. 이야기 시킬까봐 안오신단 말이에요...그 무슨 발표 하라 그러면 그게 부담이 되잖아요? 일반사람들도 똑같은 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무슨 이야기 하라고 그러면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끌어내는 게 되게 힘든 거죠.

(사례6)

처음에는 조별 모임인 줄 모르고 교육만 들으면 되는 줄 알고 갔다가 뭐 이야기 해야한다 해서 부담스럽더라고요. 낮가림이 있어서...

(사례15)

... 그니까 교육이 진짜 교육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서... 제가 예전에 마을 공동체 이런 교육 단체에서도 그니까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 도시재생대학이나 이런 것들을 개최를 하지만, 어느 순간 너무나 판에 박힌 듯이 진행되는... 관에서도 그냥 어렵히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진행이 되고, 교육팀은 그냥 교육을 맡게 됐으니까 진행을 하고... 그니까 교육을 통해서 뭔가 그 마을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 연계하는 지점들이 항상 힘들죠...

(사례3)

### 5)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

먼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단계별 혹은 심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도 있지만, 단발성 혹은 일회성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응답자들은 지속적이면서, 교육내용을 심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한 참여자는 수강생 모집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참여자 수가 일정 이상 확보되었을 때, 단체에 필요성을 제기했을 때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었다는 것이다. 반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단체의 현재 조건에서 가능한지에 대해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참여자 수의 문제도 고려사항이지만, 진행 강사나 내용, 재정 등 그 외 여러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중간지원조직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일회성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공평한 기회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심화단계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기존에 들었던 사람들이 계속 기회가 주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적인 측면에서 참여자들에 대한 관리 문제의 어려움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 담당자의 잦은 교체의 문제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응답자는 이해하였다.

<인터뷰> 20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1

... 이후에 프로그램? 연계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좀 더 짤까, 그 다음에 수강생들 마다 원하는 게 그림이 다르더라고요. 아 이거 끝나면 이거하면 좋겠어요. 저거 하면 좋겠어요,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는데. 지금 현재... 가능한 건가라는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더 연계 시켜서 이분들이 활동을 더 활성화시킬까, 그런거...

(사례7)

꾸준히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교육할 때 두 시간짜리 강의였는데, 실전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그걸 일회성으로 하다 보니 그분들에게 아마 오늘 돌아가셔서 아무도... 안해보실까봐, 제가 걱정이 되어서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꼭 ..해보시고 안 되면 연락을 주시면 좋겠다, 이런 교육이 일회성으로 진행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오늘 하나 배워왔어 말고는 실제로 그것을 실행해 보는 것까지 못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자꾸 특강형식으로 나열 하는 것 보단 심화과정도 넣고 실천과정도 넣고 그러면서 유기적으로 이분들이 정말 그것을 실행해보는 주체가 될 수 있을 때까지의 교육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사례19)

그때 이제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후속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참가자들 안에서도 나왔었어요.

(사례3)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와서 프로그램을 듣고 하니깐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거기보다 조금 깊은 것을 알고 싶다는지 그러면 내 스스로가 ... 찾아서 조금 더...

(사례18)



다른 사람도 들어와야된다,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쥐어한다고...

(사례10)

그렇게 하려고는 해요, 근데 행정에서는 그런걸 별로 안좋아하죠... 지속적으로 해야되니까, 단발성? 거의 다 단발성이잖아요. 프로그램들이 단발성인데, 이거 기초과정, 전문가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하려면 이분들이 또 여기에 참여해야하고, 또 이렇게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프로그램 그냥 신규로 이제 신입 그냥 아무나 이렇게 접수를 받는거보다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힘들어서 잘 안 되는거죠.

(사례6)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에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들의 중복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물론 교육 프로그램이 유사하다고 해서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참여자의 입장에서는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 21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2

거는 그니까 시민강좌랑 인문학 강좌랑 두루두루 하다보니까 어, 비슷한 강좌가 다른데서 여러 개 열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네 아니면 많이 열린다는 것은 식상하다는 거니까. 웬만하면 그런 강좌를 잘 안 열려고 하죠. 그쪽 단체에도 해를 주는 거고. 그렇게 안하고 열지 않았지만 독특한 걸 최대한 열려고 합니다.

(사례8)

다음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홍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먼저, 참여자의 경우 어떤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진행되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물론 sns와 같은 경로를 통해 알 수도 있지만, 우연한 기회나 소개 등으로 알게 되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접한 기회를 가진 경우에는 자신이 참여한 단체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접하지만, 다른 단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잘 모른다는 응답을 하였다.

<인터뷰> 22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3

어 sns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신문에 난 적도 있고 지인이 알려줘서 간 경우도 있고 그렇게 돼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12)

지하철 타고 가다가 지하철 포스터 광고를 봤는데...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면 되게 딱딱하고 단어들도 노동법 노동자 이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되게 재미있게 돼 있었어요.

(사례15)

음...일단 시민들한테 사실은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할 때 홍보가 참 안 되는게 되게 관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보에 대한 방식들을 또 새로 고민해야 되고...

(사례3)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자의 입장에서 홍보는 더 큰 문제였다. 홍보는 바로 참여자들의 모집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수단이다. 주요한 방법으로는 sns나 포스터 등을 이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지역사회에 퍼져나가는 것이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시민 단체의 경우 대부분 활동가들이 홍보물을 제작한다. 전문적인 디자인 등을 담당하는 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가들이 홍보와 관련되는 업무를 다른 업무와 병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활동가들 스스로가 전문성 부족 문제를 호소할 뿐 아니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는 점에서도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sns와 같은 곳에서의 홍보를 위한 광고비 자체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는 다음의 열악한 재정 문제와 관련된다.

<인터뷰> 23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4

저희는 대상자 모집, 홍보, 교육의 참여자들을 모집하는 게 ...

(사례23)

진짜로 저는 디자이너들이 절실한데... 정말 홍보 마케팅 쪽으로 약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전문 인력이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연결해서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사례24)

사실 이제 페이스북 광고비를 한 달에 얼마 정도 내면 이게 자기들이 퍼뜨려 주는 거, 그런 게 있는데 알고리즘 같은 거죠. 이거 내기도 부담스러운... 이걸 사업에 잡혀 있나부터 판단을 해야죠, 홍보비로 지출을 할 수 있나...

(사례25)

재정문제는 단지 프로그램 운영 문제만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재정 자체가 열악한 실정에서 다양한 행사를 치러야 하고, 그 중에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다양한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열악한 재정은 감사양성 문제, 홍보 그리고 다음의 공간문제와도 관련된다.

<인터뷰> 24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5

제일 어려운 건 돈입니다. 저희들이 회원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그 회원확보가 많이 되기도 한데 최근에 경제 사정도 어려워지면서 빠져나가는 분도 계시고. 10년 하셨던 분도 계시고 새 인원은 자꾸 들어오는데 오래 인원들이 또 나가시고 하시니까. 특정한 인원들로 패턴화되어 있는, 200명 이거를 못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확보를 해서 넘어가면 좋겠다는거? 두 번째는 그렇게 안 하면 회원 회비로는 기본적으로 그렇고, 나머지는 여기를 돌릴 수 있는 운영비로 나오는 거는 사업비로 받으면 되는데, 사업비는 보통 어떤 단체를 돌리는 운영비로는 전혀 못쓰거든요. 저희들이 대행을 하니깐 사업은 이제 남들이, 예를 들어 다른 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받아서 하지만 여기에는 공익을 위한 일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사업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뭐야 쓸 수 있는 돈이 안 만들어지고... 재정이 제일 큰 문제죠. 매년 거의 시민단체들이 재정 문제들이 제일 힘들 거 같아요.

(사례8)

시민단체니까 가장 부족한 건 예산이라 생각이 들구요. 이게 적다고 생각하면 추가로 더하면 되고 관련된 강사도 더 양성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것을 담당할 인력을 배치하기도 어렵고, 당장 교육이란 사업 자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강사를 양성하거나 실제 강사비를 지불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기엔 저희가 어쨌든 회비로, 단체를 운영하는 정도로 급급하니까. 좋은 점을 알고 있으나 시도하기 어려운,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지원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공공기관 중에 저희와 가장 뜻을 같이 하는,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서로 독립, 운영에 있어서는 독립, 간섭은 하지 않지만 함께 기획할 수 있는 그런 기관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찾는 것 같아요.

(사례5)

일단 예산 확보가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교육 파트가 어떠한 분야보다도 굉장히 열악해요. 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도 사실은 그런 난제를 조금 극복할 길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교육 자체에 대해서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례3)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 공간문제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교육공간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단체의 경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접근성이 좋으면서, 시설도 좋고, 저렴하게 빌릴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그런 시설의 경우 대체로 규모의 측면에서는 크지 않은 문제도 있다. 대규모 강좌를 개설할 수 있는 공간이 부산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교육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시설의 물리적인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개선하기를 희망하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쉽지 않다는 응답도 있었다.

<인터뷰> 2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6

저희는 장소, 공간을 빌려야 되고 돈이 싼 곳을 찾아 다녀야 하니까 그게 힘들고

(사례5)

엄청나게 힘들죠. 그나마 ... 유라시아 플랫폼이 생겨서 저렴하게 대관을 할 수 있긴 한데... 저희 정말 취지에 맞게 운영할 만한 접근성 있는 장소가 너무 부족해요. 그렇다고 공공기관은 빌려주지도 않기도 하고, 어떤 행사 성격상 공공기관에서 하기 조금 애매할 때 있거든요. 공신력이 있지만 자율성이란게 보장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갑갑하죠. 사실 뭐 부산이 부산 시민운동지원센터 말고 이런 시민운동 지원센터도 규모가 너무 작고...

(사례28)

음, 하나는 멀어서 못 오겠다. 거리 때문에... 이 건물이 장애인이 못 와요. 턱이 많아가지고. 아래위로 다 계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관리실에 연락해가지고 좀 장애인들이 올 수 있는 경사를 만들어달라는데 안 만들어주시고 저희들이 만들까 하고 있는데도 잘 못 만들고 있으니까. 이동장애인분들이 오시기에는 너무 안좋은... 제 마음에 걸려서.. 그래서 장애 연대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목발을 어느 정도 짚으실 수 있는 분만... 엘리베이터가 있긴 하지만 진입이 어려워요. 마음이 안 좋습니다.

(사례8)

그 외 기관과 프로그램 운영을 같이 할 경우 권위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부산 지역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하는 단체의 위계적인 조직문화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과 상통한다. 물론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다. 빈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민주적인 소통을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조직, 민주적인 소통이 가능한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기획력과 맞물리면서 프로그램의 운영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언제나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더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뷰> 26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7

저희 작년에 시민대학으로 해서 민주단체나 시설에 지원을 많이 했었고, 물론 다양하게 올라오고 그다음 아 이런 것 못 챙겼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프로그램도 좋고 다양한 기관에서 했는데, 제가 받았던 느낌은 뭐냐면 이걸 제 개인적인 겁니다. 너무 내가 낸데 라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이러한 부분을 제일 처음 느꼈고, 아까 말했듯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는 프로그램을 내 고집대로 하고 있구나, 내 고집이 아니고 그 주체 운영주체가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하고 있구나를 많이 느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편적이고 경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작년에 저희가 시민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그런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됐고, 사업도 많이 없고,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너네들이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전체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그런게 있어서 조금 깨야하지 않을까.

(사례23)

이건 약간 민주시민과 민주시민교육에도 관련이 있겠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부산의 시민사회? 시민사회의 역량이 강화되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의 역량이 강화되기 위해서, 부산 지역 변화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운동의 방법이나 방식도 그렇지만 예전의 방법이 다 잘못되거나 별로라는게 아니고, 방법이나 방식도 새롭게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구성원들의 문화? 약간 교육은 대개 민주시민교육을 봤는데 돌아가서 이분들이 전혀 민주시민스럽지 않게 조직을 운영하거나, 구성원들간에 조직문화 이런 것들이 평등하지 못한 위계적인 그런게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산 지역에 시민사회교육 조직문화가 많이 수평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는...

(사례19)

연대체의 어떤 이슈 파이팅 하거나, 세미나나 워크샵 이런걸 정할 때 보면, 소수들만 이것에 대해서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연대체라서 그런진 몰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동으로 뭔가 사람들이 여럿이 좀 모여서 뭔가 어,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함께 만들고 구성하고 기획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거죠.

(사례11)

아 하나 더요 기획력 부족에 문제가 있죠... 의도는 되게 좋았는데... 이거는 기획력 부족한 것 같아요... 역량이 부족하거나, 기획 부족의 문제도 있어요

(사례8)

## 2.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요소

### 1) 민주시민교육의 일상화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시민교육의 일상화’가 되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이 일상적인 환경에서 손쉽게 혹은 당연히 접하는 ‘문화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폭넓은 참여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미도 있고,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프로그램을 매개해 줄 기관도 필요하다. 이러한 많은 조건들이 형성되어 있다고 해도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어렵다. 개인적으로 참여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사회 구조적으로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인터뷰> 27 민주시민교육의 일상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특정한 장소 이런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거, 장소에서 다양하게 한 프로그램으로, 그 안에 이제 그런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의 내용이 녹아있는 그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누구나 접할 수 있고 이게 정말 이야기를 굳이 안 해도 이게 이제 일상화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6)

## 2) 접근성 확보

일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인프라는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하드웨어적인 것은 공간적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물리적인 접근성 문제로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공간 확보는 참여자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교육을 위한 다양한 장비 등도 물론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전염병의 확산으로 대면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 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시도과정에서 장비는 더 중요한 문제이다.

<인터뷰> 28 민주시민교육의 인프라-접근성 확보

공간이 너무 없고 물론 이렇게 공간을 여러 가지로 마련을 해주고, 해주는 곳도 있지만 저는 모여서 뭔가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이, 물론 언택트 시대에는 조금 약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까지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만나서 소통을 하려면 예를 들면 온라인상으로도 뭔가 하려면 장비라던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어야지 갖추어져야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막상 소규모의 단체나 시민교육을 하려는 곳에서 하려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코로나시대라 장비도 안빌려주고 서울쪽 만해도 팟캐스트 얼마나 많은데, 부산은 어딜 가서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곳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것, 그런 온라인 언택트 시대에 맞는 인프라 구축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례24)

거리가 먼 거, 어르신들도 보면 거리가 먼 거, 내 집 가까운데 해서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사례10)

## 3)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참여기회

활성화된다는 것은 많은 참여자들의 욕구를 실현해 줄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양하고 풍부한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인프라로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 있어야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다. 운영상의 문제만 해소된다면, 단체들간 협업을 통해 지역에서 좀 더 다양하고 풍부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설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  
져야 한다. 아무리 프로그램이 다양하다고 해도 충분한 정보 등이 제공되어야 가능하다.  
물론 시간적인 측면도 마찬가지다.

<인터뷰> 29 민주시민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1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하면 좋겠어요... 다양하게 뭐 어디서든 누구나 몰라서 참여 못 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내 시간을 내서 못 하는 거, 관심이 없어서 못 하는 거,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사례14)

이런 거 하는 거를 배우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데 이런 교육들이 대부분 서울 쪽에 많이 편중  
되어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부산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좀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사례4))

저는 맞춘 것 같아요. 사람들에 대한 맞춤, 인권을 100명한테 3개를 하는 것 보다, 그냥 10  
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냥 소그룹에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고 세 개의 문제를 같이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세부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사례16)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장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할 민주시민교육 프  
그램도 있지만, 시의적절한 이슈를 주제로 제공해 줄 수도 있어야 한다. 물론 이는 기획  
력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사회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가능한  
것이다.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질문들을 가진 프  
그램을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뷰> 30 민주시민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2

제일 잘된 것은 그 시대에 따른 이슈를 던질 때 제일 많이 와요...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관심  
이 높아졌다는 것... 관련해서 연구자들은 사실 있었고, 연구가 많았는데, 일반인들은 ... 잘 몰랐  
죠... 그런게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거고...

(사례8)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유발이나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강사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자의 경우 강의 첫 시작에 대한 고려, 수업 흥미를 이끌어 줄 다양한 장치들에 대한 고려 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흥미유발이나 동기부여는 진행강사의 역량에 많이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인터뷰> 31 민주시민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3

일단 강사님들이 재미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루는 주제들이 가벼운 주제들이 아니다 보니 그, 제가 만났던 강사님들은 다 즐겁게 강의하시긴 했는데, 그것을 제가 아닌 다른 일반 학생들이나 아예 여기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한다고 하면 관심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동기부여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왔을 때 그다음에도 와야 되겠다라는 동기를 부여해 준게 핵심인 것 같아요.

(사례15)

관심도를 어쨌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장치를 많이 심어둡니다. 워낙 이론수업만 하면 재미없는 것이라 이론수업을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영상을 쓸거냐, 사진을 쓸거냐, 그런 다양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런 준비 그것에 대해서 그것 뿐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이냐, 준비를 할 때 그런 것 다 고려...

(사례26)

#### 4) 친밀함과 감성 자극 환경 조성

낯선 환경, 처음 보는 참여자들, 무거운 주제 등과 같은 것들이 교육 프로그램의 첫날 장면이다. 익숙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참여자들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다수의 응답자들의 경우 자기 스스로 혼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첫 시작을 힘들어했다. 프로그램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도 중요하다. 물론 참여자들에게 프로그램의 주제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다른 요인들로 인해 서도 프로그램 참여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 수업 참여도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감성적인 것들에 의해서도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

서먹서먹할 때, 제일 처음이... 그니까 첫 날이 제일 힘들죠

(사례12)

단체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환대요. 모시는 분들에 대한 환대요. 그것만 잘 해주셔도 참여자들이 기쁘게 참여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례15)

아.. 그것도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수강생들 사이에서 유대관계가 생기면 좀 편한 것 같아요. 맨날 올 때마다 항상 새롭고 항상 올 때마다 뭔가 리셋되서 항상 새롭게 오시면 좀 매번 힘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도 티타임 같은거를 계속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프로그램을 한다하면 약간 징검다리처럼, 그 수업시간에 이야기 다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식의 약간 유희류가 될 수 있는 콘텐츠를 넣어 가지고 그런 걸 해서 좀 조금씩 좀 친밀한 느낌 그걸 라포라하나? 그런 분위기를 조금 라포를 잘 만들어가고 서로 좀 친밀감을 잘 만들어가면 수업이 되게 편하고... 일단은 활성화시키려면 수강생 분들하고 잘 맞아야 흡수가 되니까.. 수강생 분들과 그런 유대관계? 정서적인 관계? 그런거가 되게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야 뭔가 경청도 되고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 참여도도 자발적으로 하고 좀 역지사지 하면서, 저 강사님이 뭐 발표하라는 데 좀 안됐다 해야하지 않겠냐, 이런식의 생각을 하면서 자발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사례7)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뿐 아니라, 감성을 자극하는 환경 조성 또한 중요하다. 물론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좋아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참여자들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측면으로 감성적 자극을 줄 수 있는 교육 공간, 친밀감을 이끌 수 있는 공간환경이 구성되어 있으면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뷰> 33 민주시민교육의 교육 환경-친밀한 교육 공간-2

그게, 교육 프로그램 내용도 사실은 좋기는 했는데, 물론 그래서 이게 지원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었던 것 같고, 되게 사이드적인 배경의 혜택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니까 뭐 세팅, 교육장의 세팅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퀄리티도 되게 높았고. 근데 사실은, 일반 시민 이런 단체에서 그렇게 어떤 프로그램 진행하기 잘 쉽지 않거든요... 지원금이 이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진행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저도 좀 느꼈고, 해서 되게 감성의, 실장님의 영향이 되게 많이 반영되기는 했지만 감성적인 어떤 세팅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가자들로 하여금 좀 지속적으로 계기도 되었던 것 같아요. 매번 감동이었어요. 교육장 자체가, 그니까 테이블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천 이렇게 깔려있고 항상 꽃이, 항상 꽃혀있었어요. 그리고 매번 다른 간식을 준비를 하고. 그 간식을 준비한 이유가 항상 있는거예요. 아, 그 전까지 저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육장 세팅을 해봤지만, 아 사람이 사람을 대한다는 기본적인 마음이 이런 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된다는 걸 놓치고 그냥 무심하게 딱 프로그램을 진행했구나라는 생각을 보통 많이 했었어요.

(사례3)

여기 보시면 인테리어 환경이나 하드웨어 환경도 좀 불만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 옮겨 볼까 고민 있고 제 사적 고민이고.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네 재정도 필요하고요. 조금 더 친근한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너무 사무실 분위기라서 그것도 좀 불만이고

(사례8)

## 5) 홍보

이미 앞에서 홍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듯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의미 없다. 따라서 활성화에 있어 홍보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앞의 문제점에서 지적한 것처럼 홍보가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보다 광범위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인터뷰> 34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홍보

근데 제가 지금 볼 때는 일반시민이나 단체에서 사실 민주시민사회교육이란걸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민주시민사회교육 이렇게 우선 먼저 PR을 많이 해야할 것 같아요. 하고 이런 이런데서 이런이런걸 한단걸 많이 알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몇 분들만 하시잖아요. 민주시민 교육, 단체 리더들만 이렇게 있다라는 정도지, 사실 이 민주시민사회를 아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념을 가지고, 민주시민사회 이념을 가지고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한다라는 걸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되어야만이 이게 활성화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례20)

사람들이 뭐가 어디서 뭘 하는지 그걸 잘 모른다, 어른들 같은 경우 홈페이지 이런데 들어가야 하잖아요. 잘 못 들어가잖아요.

(사례10)

## 6) 강사풀 확보와 강사역량 강화

문제점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지역에서 강사풀 문제는 중요하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도 다양한 주제들을 소화할 수 있는 강사들이 있어야 한다. 많은 응답자들이 무엇보다 교육 프로그램의 재미를 중요한 것으로 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주제나 내용도 좋지만 진행강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많이 의존한다. 기본적으로 좋은 강의는 활성화의 전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에 있어 강의 역량은 중요하다. 응답자들의 경우 강의역량을 키우기 위해 단체에서 보수교육을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응답자들도 다수 있었다.

<인터뷰> 35 민주시민교육 강사 역량-1

민주시민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딱히 정해져 있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민주시민교육을 시키기 위해선 핵심가들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조직같은 경우... 강사를 육성을 합니다...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육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민주시민사회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민주시민사회교육을 보급할 수 있는 핵심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가란) 활동가죠. 활동가 그분들이 민주시민교육을 사회 어느 방면에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핵심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 교육가를 육성을 시켜야 한단거죠

(사례20)

한 사례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재미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참여하였는데, 이론적인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상당히 힘들었다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8주로 예정된 교육 프로그램이었는데, 3주만에 거의 탈락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내용 자체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이는 진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강사 역량이 반드시 강의역량만이 아니라 진행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와도 관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인터뷰> 36 민주시민교육 강사 역량-2

그게 선생님 한 분 두고 \*\* 교육이었던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교육이 너무 이론에 집중을 해서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이론만, \*\*의 개념과 이론, 이런 것만 하시니까 저희는 그것을 이론 공부 하려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사회현상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었는데 8회 기준에서 3회까지 가서 다 탈락했어요. 너무 다들, 하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거의 다 탈락했어요.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있는 걸 기대하고, 제목만 보면 되게 재미있겠다하고 갔었는데,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례15)

## 7) 자격증(이수증)

자격증이나 이수증에 대해 응답자들은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슷하였다. 응답자들의 다수가 자격증이나 이수증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봤을 때, 자격증이나 이수증이 활성화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자격증이나 이수증을 받지 않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응답자라고 하더라도 받는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 반응을 보였다. 이후의 활동을 고려하는 입장에 있는 참여자의 경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참여자가 자신의 스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활동을 전제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수증이나 자격증의 부여는 만족감이나 자부심과 같이 개인적으로 해냈다는 성취감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동기부여의 경우 진행강사의 역량에 의존한다고 하였지만, 자격증이나 이수증이 부여된다는 사실 자체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인터뷰> 37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자격증(이수증)-1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종이 하나긴 하지만...

(사례14)

내가 여기를 와 오면서 꾸준함이란 그 수료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교육을 80% 이상을 참석 했다는 것 자체가 나의 성실성이라든지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왔다는 것에 뿌듯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12-환경참여자)

이게 강사로서 뭐 위촉장이 필요하고, 그니까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가능성이 있어서 되게 긍정적이었지만, 만약 내가 강사를 안 하고 관심 있기만 했었으면 그것도 뭐 있으면 좋은거니까 .이게 어느 과정을 끝냈다는, 아, 이걸 내가 해냈다는 자기만족이 될 것 같습니다.

(사례13)

반면, 프로그램 진행강사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고민지점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수증이나 자격증에 대해 참여자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활성화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의미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터뷰> 38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자격증(이수증)-2

필요하신 분이 간혹 계시긴 하는데, 저희는 자체 발급하고 있진 않지만... 환경부 쪽에서 권고로 수료증을 또 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뭐 이력으로 쓰시고 싶으시다하면 요청 하에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본인이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하신 경우도 있으니까.

(사례9)

주는건 없습니다. 개근상 이런 건 드릴 때 있는데 하하하. 고마워서 드릴 때 있는데. 그거 고민이네요. 사실은 자격증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했는데, 자격증을 남발해서 뭐하겠느냐 라는 말씀도 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이 효과는 없지만 자부심은 가지시는 정도는 드러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고. 아직도 의견은 팽팽합니다. 음, 저는 좋아하시면 드리자. 그리고 그거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 찾아가는 배달강좌 같이 동구처럼 그 분들이 강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수는 있고...에서도 강의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고, 그니까 수강자가 강사가 되는 그 순환을 만드는데는 형식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남발해도 된다 생각하는게, 어떤 사람이 그래서 자격증으로 레벨 차이가 나는 것을 없애버리고 싶기도하고. 능력이 되면 가르칠 수 있게 오히려 남발하자 하는 것도 있어요.

(사례8)

저는 그게 무슨 의미, 의미 없는 거라고 봅니다. 이유가,,, 그 자격증을 준 곳에서 그 자격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걸 자격증을 가지면 실제로 이 사람이 민주시민이 되는 건지? 네, 솔직히 그런 거에 대한 의문, 네네.

(사례11)

## 8) 정부의 지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먼저 민주 시민교육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면, 다수의 시민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표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들 수 있다. 경제적인 문제는 강사들의 강의료나 공간 문제 등과 같은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인터뷰> 39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1

학교 교육에서 이것(민주시민교육)을 조금 넣어야 하구요, 학생들 대상으로 하면서 이 학생들이 커가면서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례13)

첫 번째, 법, 그런 민주시민교육이 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순식간에 변하는 게 많거든요. 2~3년 안에 통과된다고 바로 변할 수 없죠. 그에 맞는 기관을 다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강제해서 아까 말씀드렸듯 수업을 하도록 의무 교육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기본적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하게 돼 있잖아요. 들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도나 정부에서 도와서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재정적인 게 따라야 해요. 예컨대 강사도 먹고 사는 사람이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있어야 해요.

(사례17)

그러나 정부의 지원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성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 양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교육사업이라는 것이 양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보는 것도 아니다. 장시간의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인터뷰> 40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2

재정은 지원하되 운영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 것요. 하하하.

(사례15)

음, 하 (웃음), 네, 이거는 제일 문제는 시간이죠. 네. 어,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그 시간을 허용해주지 않는 두 가지가, 한국 민주시민교육 혹은 한국 교육계가 너무나 짧은 시간에 되게 많은 것들을 뽑아내려고 하는 성과주의 경향이 있고요. 그것이 민주시민교육에 그대로 물들까 봐 걱정이죠. 사실은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제 입법이 되고 하면 행정으로 그 교육이 들어갈 텐데, 행정에서는 가시적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 결과를 내려고 하면 어, 사람이 생활 속에서 천천히 변화하는 것들을 행정이나 제도는 보고 있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제일 약점이라고.

(사례8)

## 9) 매개 기관의 필요성

현재 부산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은 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각 단체들마다 단체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단체들 간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문제는 참여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참여자들도 부산에서 다양한 단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개인적 정보력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단체들 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해 연계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매개해 수 있는 기관에 대한 필요하다.

<인터뷰> 41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매개 기관

음, 아, 이거는 최근에 깊게 생각하는 건데, 민주시민교육의 일상화가 저는 활성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일 문제는 거의 부산의 문화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허리가 약해요. 민주시민교육을 받으려고 한다 해서 제도적으로 뭘 만들고 하면 수요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급하는 사람



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매개해서 어떤 장을 연출하는 그 자리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시민교육을 예를 들어서 여기는 동구니까요. 동구에 맞게 기획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동구는 동구의 특징이 있습니다. 연령대도 있고, 자연환경도 그렇고, 교통문제도 그렇고, 주거환경도 그렇고. 그러면 동구에 맞는 기획을 해서 딱 열어야 되는, 그런 이제 뭐, 어떤 기관이 있어야 하고,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약한 거죠.

네. 교육하는 사람.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민주시민교육을 할 의지가, 정신이 있는 사람. 그럼 그걸 기획하는 사람. 이 교육과 기획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나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 민주시민교육이 중간 허리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이 딱딱하다거나 정치교육이라던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무관심한 사람들 편견을 제거하면서, 그 다음에 무관심을 관심으로 돌리면서 모을 수 있는 힘이 길러질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것만 잘되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매개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8)

이상의 내용을 보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접근성 문제, 다양한 프로그램과 참여기회, 홍보, 친밀감과 감성 자극, 좋은 강사 확보, 정부의 지원, 매개기관의 역할 등이다.

정원규 외(2019)의 연구에서 활성화의 공통적 요소로 홍보, 운영 공간, 프로그램 진행자 특성 및 진행자/참여자 관계, 프로그램 참여자들 간 비공식적 모임, 개인적 도움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나 진행방식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앞의 내용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산에서도 홍보나 운영 공간, 관계는 중요한 것으로 보였다.

부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운영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경우 운영 공간 확보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접근성 문제나 친밀한 분위기 등의 인테리어적 요소 등도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 이는 운영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었다. 이제는 운영 공간 자체 뿐만 아니라, 장애물 없는 (barrier free) 건물, 친근한 분위기 등과 같은 부분도 활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다.

### 3. 유형 분류 제안

#### 1) 유형 분류에 대한 비판적 입장

민주시민교육의 기획·실무를 담당하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2팀으로 나누어 실시한 FGI에서 유형 분류에 대한 이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물론 이러한 유형 분류에 대해 세부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한 상태에서 진행된 내용들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많은 언급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유형 분류의 목적은 내용에 대한 이해를 일목요연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유형에 대한 많은 설명을 필요하였다.

그리고 유형 분류의 기준이 임의적이라고 하였다. 유형 분류의 기준이 개념적으로 구분되어야 하고, 상호 배타적이어야 하는데, 모호하다는 것이다. 가령 의제란 무엇이며, 그 안에서 사회적 주제와 개인적 주제가 어떻게 구분되는가. 그리고 사회적 주제를 가진 프로그램 중에서 의제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반드시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개인적 주제로서 의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의제와 활동의 뚜렷한 기준이 개념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가. 그러다보니 유형별로 각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는다.

FGI에서 응답자들은 ‘찾아가는 골목회의’의 경우 마을 주민 간 관계의 개선에 초점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개인적인 주제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물론 마을 주민은 개인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주제라고 하지만, 마을에서 회의의 주제는 마을 공동체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사 강사 양성’의 경우도 개인이 강사로서의 개인적 진로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일 수 있다. 개인적 관심에서 전문성 확보<sup>6)</sup>를 위해 강사 양성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실제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어느 유형에 적절한지 분류하기 어렵고, 어떤 프로그램의 경우 애매하게 걸치게 된다고 응답하였다.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이 2개 이상의 유형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6) 한 응답자는 민주시민교육에 ‘전문성 확보’라는 표현이 적절한가라는 반문을 하였다. 전문성이라기 보다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개인적 주제로서 활동에 초점을 두는 유형의 경우 운영진에 대한 인격적 신뢰가 주요한 활성화 요소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런데 부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응답자들은 운영진에 대해 인격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부산의 경우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활동가 및 회원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련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있는 참여자들이기 때문에 회원이 아니어도 단체나 운영진에 대한 기본적 신뢰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운영진에 대한 인격적 신뢰란 상당히 주관적이다. 참여자들의 정서적이고 인격적인 좋은 경험이 프로그램 참여에 더 많은 매력으로 작용하지만, 그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면 그것이 활성화 요인이 되는가. 정원규 외(2019)에서 유형 6의 인터뷰 내용은 실제 부산에서 실시한 (감성 자극하는 환경, 사례3 인터뷰 내용)의 인터뷰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의 응답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례3 응답자가 참여한 프로그램은 사실상 활동가들의 성장지원 사업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었다. 시민단체에서 일정 이상의 경력을 가진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 프로그램이었다.

반면, 아래 사례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당시 언론에서 이슈화가 되면서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환경관련 내용을 다루는 교육이었다. ‘많이 좀 듣고 아 문제가 뭐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사례 12) 응답자는 배움과 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관련 주제에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다는 점, 그리고 운영진에 대한 인격적 신뢰가 프로그램 운영에서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형 6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초점이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제는 아닌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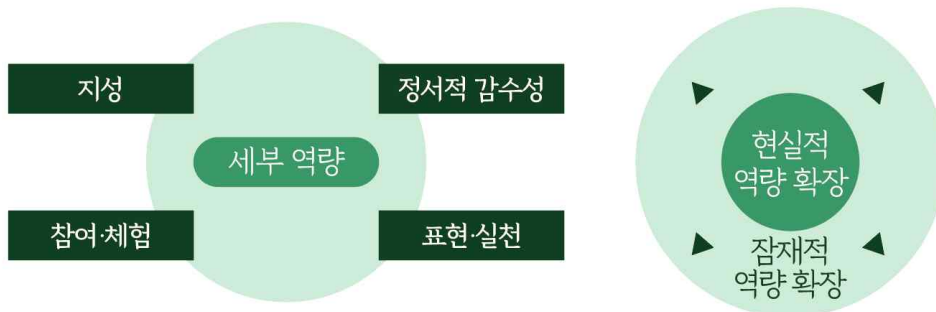
<인터뷰> 42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진에 신뢰

어 준비상태라든지 저희가 강의 듣고 난 후에 오후에 만들기 수업도 있었거든요. 근데 준비물이나 이런 세팅이라든지 저희가 교육을 받고 있으면 수업을 딱 만들게 할 수 있도록 하든지, 피피티라든지 강사님이 오셨을 때 강사님이 강의하기 한 15분 전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다든지, 오시는 분들이 체크해서 지난 번에 안 오셨던 분들은 5분 10분 전부터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인원체크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러한 교육, 아까도 신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런 조그마한 사소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느꼈을 때는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사례12)

## 2) 부산의 유형 제안 : 민주시민교육 운영 전략에 따른 시민역량 분류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김종기 외, 2019: 89-90)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획 및 운영 전략으로 민주시민의 역량<sup>7)</sup> 강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민주시민의 역량을 증대하기 위한 교육을 ‘두 가지 기본 역량과 네 가지 세부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기본 역량은 ‘지금 당장 발휘할 수 있는 현실적 역량’과 ‘앞으로 발휘할 수도 있는 잠재적 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잠재적 역량은 민주시민교육을 당장 드러나는 정량적 평가나, 성과지향형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문제를 탈피할 수 있게 하고,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적 환경이 급변할 때 개인이 상황에 희생되지 않으면서 시민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시민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의 특징에 따라, 합리적 지성의 역량, 정서적 감수성 역량, 신체적 참여와 체험 역량, 역량 발휘와 역량 발휘의 사회적 물리적 조건 창출에 관한 표현과 실천의 역량으로 나누어 다양한 역량을 복합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교육’으로 세부 역량을 구분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아래의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7] 민주시민교육 운영 전략에 따른 시민역량 분류

7) 본 역량구분은 김동규에 의해 제안된 것이다. “역량(dynamis, capability)이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선을 증진하는 시민의 능력을 말한다. 최근에 이를 역량적 접근으로 발전시킨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르티아 센과 마사 누스바움이 대표적이다. 센은 시민이 이를 성취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해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누스바움에 따르면, 개인의 역량은 단수의 역량이 아니기에 역량은 늘 복수로 고려되어야 한다. 역량 교육은 자신의 역량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교육이어야하지만, 아울러 지금 실현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 미래에 꼭 실현되지는 않더라도 상황의 급격한 변화에도 여전히 자신의 자율성을 발휘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잠재적’ 능력을 계발할 수 있어야 한다.”(김동규, 2018; 김종기 외, 2019: 89 재인용)

본 조사연구에서는 위의 선행된 연구(김종기 외, 2019)에 기반해서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시민의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민주시민의 역량을 확장하는 것에 두며,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유형에 기반해서 세부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sup>8)</sup>

먼저 민주시민 역량은 ‘민주주의적 시민사회에 소속된 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자질과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Audigier, 2000; Dahlgren, 2006; Torney-Purta & Vermeer, 2004; 김준홍, 2012: 163에서 재인용) 이는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하고 책임 질 수 있는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다른 구성원들과 연대하고 협력하여 보다 민주적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장근영외, 2011: 15)을 의미한다.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원리와 지식을 바탕으로 의식을 고양시키고 감수성을 높이며, 체험이나 실천을 통해 보다 나은 일상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능력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유형을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시민역량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역량을 인식과 행위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시 인식 과정은 합리적 지성과 감수성, 행위 영역은 체험과 실천으로 분류하였다.

### ① 합리적 지성 역량

합리적 지성은 사실적 지식과 다양한 정보에 대한 분석 등 사고력과 분석력을 바탕으로 한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간의 인식 능력을 바탕으로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고양할 수 있으며,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응답자는 다양한 법률적 지식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지식으로서 요구되는 내용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응답자는 단순히 학습내용으로만 받아들이기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법률적 정보들로 이해하였다. 이렇게 인지된 법률적 지식은 주변에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자양분이 되어 스스로 보람도 느낀다고 한다.

8) 민주시민역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사연구에서는 엄밀한 개념적 정의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미루고,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민역량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시민역량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임파워먼트(empowerment)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아래의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드라마를 보면서도 법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접하게 되면 이러한 법률적 정보들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일상에서 스쳐지나가는 것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인터뷰> 43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민 역량-1

어, 저거는 내가 들은 것 중에서 저거는 맞는 것 같다, 맞아 저런 것 있었지. 그런 걸로 해서 반영이 되죠. 드라마 볼 때 따지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교육을 받고 나면, 특히나 뭐 드라마 이혼해 하고 하면서, 저건 말이 안 되고 그냥 다 드라마니까. 그냥, 아니 저건 말이 안 돼, 그래서 드라마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런 걸 다루려면 좀 공부를 하고 참조해야지 되고.

(사례18)

## ② 감수성 역량

인간이 알고 인식한다는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능력에 의한 것도 있지만,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이해도 존재한다.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식 능력에 관심을 두었다. 그런데 공동체에 공감하고 연대성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한다고 획득되는 부분은 아니다. 합리적 지성과 구분되는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공감 능력에 의해 공동체에 대한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공감적 이해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게 되고, 실천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래 응답자의 경우 ‘납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일상세계에서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능하다. 그렇지만 이성적으로 알고 있다고 어떤 행동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즉 정서적 감응, 감성적인 이해와 같은 공감 능력이 타인이나 공동체에 연대감을 형성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되어 실천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성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감수성 역량인 것이다.

<인터뷰> 44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민 역량-2

이해하고 납득은 선생님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해는 되지만 사실 우리가 마음으로 딱 안받아 들여지는 게 있잖아요. 납득이란 건 일단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뭐 그러니까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 납득 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각자 옳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게 내가 납득 할 수준까지 맞춰주는 게 그게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한, 그게 높을수록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단계가 높을수록 좋은 사회인 것 같고 그래서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례13)

제 삶이 조금씩 변화된다는 것. 네, 내가 그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대로는 못하지만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어, 나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내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는 게 그게 엄청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례12)

### ③ 참여/체험 역량

행위의 영역으로는 체험과 실천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체험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직접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며, 참여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다.

아래 응답자의 경우,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정보를 공개 청구하는 방법에 관해 교육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이후 그 교육을 접한 참여자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간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교육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체험하였다고 한다.

<인터뷰> 45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민 역량-2

... 교육을 작년에 한번 올해 한번... 했는데 작년에는 실전교육을 못했어요, 시간이 짧아서. 올해는 하고 나니 피드백이 빨리 오더라고요... 그때 청구했던 자료를 받았다, 받았는데 선생님이 너무 신기하다, 저 또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싶다, 혹시 청구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겠어요 하는데, 청구서 먼저 한 번 작성을 해보시고 저에게 주시면 다듬어 드리겠다. 청구서를 잘 작성하는 것도 공개를 잘 받을 수 있는 팁이니까. 어쨌든 정보공개를 활용하는 활동가가 생긴거잖아요.

(사례19)

#### ④ 표현/실천 역량

그런데 참여 혹은 체험과 구분되는 실천은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인간의 활동이다. 직접 행동하고 실천하는 활동으로, 자기 삶의 주체로 인식해가는 과정이며,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다. 체험이 수용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면, 이와 구분되는 실천은 발산적인 형태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교육 방식을 통해 발현될 수 있다.

<인터뷰> 46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민 역량-3

... 직접 시민들이 만들어 내는 거였는데, 저는 굉장히 참신하고 재미있었거든요. 그때 조별로 관심 있는 분야에 있는 사람끼리 앉아서 만드는데 내가 어디에 속해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내 정체성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어느 기관의 누구가 아니라, 온전한 나로써 존재를 하면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사례15)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시민역량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을 어떤 역량 증대에 둘 것인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 참여자의 차원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세부 역량 중에서 특정 하나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나머지 역량들 역시 교육 내용에 따라 강약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실적 역량을 주요 목표로 특정한 어떤 역량을 둔다면, 잠재적으로 혹은 장기적인 전략으로 다른 역량의 증대를 목표로 둘 수 있다. 교육이라는 것이 바로 효과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많다. 그런 경우에는 잠재적 역량을 고려해서 기획 및 운영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 부산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Korea Democracy Foundation

## V. 정책 제언



## V. 정책 제언

연구 참여자와 진행강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과 기관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FGI의 분석과, 민주시민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구성된 유형 분류 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① 민주시민교육 표준 강의안 제작과 수정 :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내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 했다는 점은 앞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이른바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도 필수적으로 논의되어야 하지만, 이념적으로 유사한 기관이나 단체들 사이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내용, 범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실태조사와 사회적 합의 공론화 사업의 전국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표준 강의안과 워크북 같은 교보재를 전국 단위에서 논의·제작·공유할 필요가 있다. 표준 강의안 제작은 1년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고 당분간은 매년 이를 수정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표준 강의안의 제작과 공유는 단기간에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내용, 범위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규정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그것이 가진 여러 단점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수정함으로써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같은 단계의 민주시민교육 원칙을 도출해 내는 일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② 중간 지원 조직(민주시민교육 센터) 건립 : 민주시민교육의 수행에는 다양한 지원 요소들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고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적, 재정적, 공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민주 시민교육의 거버넌스 구축을 수행할 수 있는 물적 기반으로서 민주시민교육 센터의 건립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부산의 경우 2019년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서 이미 그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해서도 재확인되었다고 본다.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 organization)은 서로 다른 두 조직 사이에서 양자의 연계를 강화하거나 원활하게 하는 활동을 수반하는 조직을 의미한다(Briggs, 2003; 박세훈, 2005: 79 재인용). 중간지원조직의 지원활동은 연구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자원 지원, 역량강화, 연결, 정보제공,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조철민, 2016: 365) 따라서 센터의 건립은 ㉠ 재정이나 공간, 환경 등의 지원, ㉡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단체나

---

강사의 역량 강화, ㉔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사이의 연계, ㉕ 참여자에 대한 홍보나 단체 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㉖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적인 개발 등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연구 참여자(사례 27)의 “그냥 하고 있는 교육을 그대로 그냥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묶어서 예산을 배분하는 형태로 가면 ... 그거야말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사업을 만드는 것일 뿐”이라는 지적은 센터 건립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증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③ 정부의 재정 지원 : 연구 진행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일관된 주장은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면접 진행 과정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의 입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우리 사회가 가진 극단적 대립과 갈등을 민주시민교육의 정착을 통해 해결 가능하리라는 기대로 읽혀졌다. 제도적 정착으로 민주주의의 성장을 말한다면, 분명 한국 사회는 선진적인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대립과 갈등의 차원에서 우리 사회를 평가한다면, 아직 민주주의가 든든하게 뿌리를 내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성장하였지만, 회사 문 앞에서, 교문 앞에서 민주주의가 멈추는 현실은 누구나 겪는 고통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성장통을 겪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결국은 법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은 자신이 겪는 문제를 자율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사회의 전형적인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민주시민의 역량 강화를 강조한 것은 면접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이러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의 공유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을 주권자로서 시민이 자율성과 공동체 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은 필수적이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의 국회 통과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민경, 2020,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통한 국내 민주시민교육 연구 동향 분석,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Vol. 29, No.3, pp. 113-133
- 김민호, 2011, 지역사회기반 시민교육의 필요성과 개념적 조건, 평생교육학연구 Vol.17, N03 pp. 193-221
- 김아영, 2020, 가부장제에 대응하는 민주시민 교육의 과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0권 제8호, pp.1319-1335
- 김영석, 2019, 중등 교사들의 민주시민교육 의미 해석 및 실천 전략에 대한 FGI 연구-서울과 강남을 중심으로
- 김용찬, 2004,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인권교육 개선방안,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논총 24집, pp. 141-154
- 김은경, 2016: 41,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주민자치역량 강화 방안, 월간 주민자치 51, 40-43
- 김준홍, 2012,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과 언어 환경이 욕설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Vol. 23. No. 4. pp. 159-188
- 박상영, 2020,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정치학: 보수.진보 진영의 학교 민주시민교육 정책 분석 (2003-2020), 시민교육연구 제52권 3호, pp. 1-33
- 박세훈, 2015,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특성 연구: 정부-시민사회 관계의 관점에서, 도시행정학보 28(3), 75-104
- 서재복, 송태규, 임명희, 2020, 중학생 민주시민역량 증진을 위한 인성과 문화다양성교육 프로그램 효과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0권 제6호, pp. 885-905
- 신두철, 2010, 한국 국가기관의 민주시민교육 실태와 제도화,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세미나, 31-50
- 신미식, 2011, 한국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 한국동북아논총(61), 219-242
- 심성보, 2017,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학논집 67, 93-122
- 안승대, 2017,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평생교육의 재정립시도에 관한 연구, 동아인문학 38, 221-253
- 안정임, 최정호, 2020, 디지털 시민성 역량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령대별 차이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57, 133-177
- 양해성, 2020, 민주시민 역량으로서 반성적 성찰의 교육 방안 연구-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연구(67), 207-226
- 양홍원, 2014, 독일 정치교육 사례에 기반한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모형 탐색 연구, 평생학습사회 10(2), pp. 77-104
- 원준호, 2019,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법제화: 쟁점 분석과 독일 사례 참조를 통한 개선방안 제안
- 윤택림, 2013(개정판),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 방법론, 아르케

- 이동윤, 2020,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 교훈: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글로벌교육연구 제12집 2호, pp. 85-113
- 이윤정, 2001, 문화교육으로서의 시민교육-미국 시민교육의 사례, 청소년문화포럼 4, pp. 139-151
- 장근영, 박수억, 장지영, 201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개발 연구 총괄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3-11
- 장수빈, 2018, 학교 민주 시민교육 정책 방향 탐색: 미국 교과교육과정과 수업 유형을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제25집 제4호, pp. 241-267
- 장은주, 2017, '형성적 기획'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방향과 초점, 한국학논집 67, -----, 2019,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의 방향과 제도화의 과제, 시민과세계, 99-134
- 장준호, 2019, 민주시민교육의 토대에 관한 성찰-시민성의 아프리오리(a priori)로서 윤리와 도덕을 중심으로, 한국도덕윤리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7-29
- 정원규 외, 2019,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민주시민교육 연구보고서 201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정하윤, 2014,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과정과 쟁점-법제화를 둘러싼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미래정치연구 4(1), 31-53
- , 2015,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역사와 제도화 과정,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세미나, 91-109
- 조철민, 2016, 서울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상태와 중간지원조직의 지원활동, 신학과 사회 30(1), pp. 355-396
- 최숙기, 2019, 민주시민역량 측면에서의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행 양상 연구-사회적 참여 요소와 책임감 있는 미디어 사용 요인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Vol. 71, pp. 389-422
- 허영식, 정창화, 2020,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체계화를 위한 교수학습원칙과 실천방안,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제8권 제1호, pp. 35-58
- Creswell, J.W.,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공역, 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접근, 학지사
- Flick, Uwe, 임은미, 최금진, 최인호, 허문경, 홍경화 공역, 『질적 연구방법』, 한울, 2009.
- 오마이뉴스, 정권 바뀌었으니 '민주공원' 이름 바꾸자?(2009,06,2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66726](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66726)

## 부록 1. 부산 지역 민주시민교육 기본운영 현황조사 설문지(구글폼 이용)

### 부산 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를 위한 - 민주시민교육 기본운영 현황조사 -

안녕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저희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올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부터 부산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실태조사에 앞서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본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현황조사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일조하신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연구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5월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공동연구자(책임연구원 진시원/부산대학교) 올림

문의: 서희원(010-2\*\*\*-\*\*\*\* / life\*\*\*\*\*@hanmail.net)

1. 귀 단체명을 적어주십시오. ( )

2. 귀 단체의 성격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중복 가능)

- |           |           |              |          |         |
|-----------|-----------|--------------|----------|---------|
| ① 인권      | ② 인성      | ③ 여성         | ④ 성평등    | ⑤ 장애인   |
| ⑥ 민주주의    | ⑦ 시민참여    | ⑧ 문화, 예술     | ⑨ 평화, 통일 | ⑩ 문화다양성 |
| ⑪ 생태 및 환경 | ⑫ 언론과 미디어 | ⑬ 경제, 복지, 노동 | ⑭ 기타     |         |

3. 귀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중복 가능)

- ① 단체의 활동을 알리거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 ② 지역사회 및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
- ③ 비판의식과 책임감을 높여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 ④ 민주사회를 위하여 시민이 갖추어야 할 지식·가치·태도 등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
- ⑤ 기타 ( )

4. 귀 단체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사업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홍보방법은 무엇입니까? (예: 웹포스터)  
( )

5. 귀 단체에서 2019년에 진행했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수는 몇 개입니까?

- ① 없음      ② 1~3개      ③ 4~6개      ④ 7~9개      ⑤ 10개 이상

6. 귀 단체에서 2019년에 진행했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명을 실시한 대로 적어주세요.  
( )

7. 귀 단체의 교육 형태는 어디에 해당 합니까?(중복 가능)

- ① 정기 교육(예: 상/하반기, 분기별 등으로 진행되는 교육)
- ② 부정기 교육(예: 사회·문화적 이슈에 의해 단기간·비정기적으로 구성되는 교육)
- ③ 계기 교육(예: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교육)
- ④ 특강 형태(예: 실무자/회원/시민을 위한 1회성으로 만든 교육)
- ⑤ 찾아가는 교육(예: 기관이나 단체에서 요청하여 강사 및 실무자를 파견하는 교육)
- ⑥ 기타

8. 귀 단체가 중점을 두는 교육대상은 누구입니까?

- ① 어린이      ② 청소년      ③ 청년, 대학생      ④ 일반시민
- ⑤ 회원      ⑥ 지역주민      ⑦ 단체 활동가      ⑧ 대상구분 없음
- ⑨ 기타 ( )

9. 귀 단체의 교육프로그램에 1회 참여 인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 ① 10명 이내      ② 11~20명      ③ 21~40명
- ④ 41~60명      ⑤ 61~100명



10. 귀 단체에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중 어느 분야에 해당합니까?

- ① 인권교육 ② 인성교육 ③ 장애인교육 ④ 성평등교육 ⑤ 여성권익교육
- ⑥ 민주주의교육 ⑦ 시민참여교육 ⑧ 문화, 예술교육 ⑨ 생태, 환경교육
- ⑩ 평화, 통일교육 ⑪ 문화다양성교육 ⑫ 언론과 미디어교육
- ⑬ 경제, 복지, 노동 교육 ⑭ 기타( )

11. 귀 단체의 교육 사업비 확보방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중복 가능)

- ① 회원의 회비 ② 참여자 수강료 ③ 단체 및 기업의 후원금
- ④ 중앙부처 공모사업 ⑤ 광역자치단체 공모사업 ⑥ 단체 및 기업 공모사업
- ⑦ 정부 및 자치단체 보조금 ⑧ 기타 ( )

12. 귀 단체의 교육 장소는 어디입니까?(중복 가능)

- ① 자체 공간 ② 공공기관 대관 ③ 사설기관 대관
- ④ 다른 시민사회단체의 시설 대관 ⑤ 기타( )

13. 귀 단체의 교육 방법은 어떤 형식입니까?(중복 가능)

- ① 강의식 ② 세미나 ③ 참여형 ④ 토론식
- ⑤ 체험학습 ⑥ 현장 답사(기행) ⑦ 강의 후 질의 응답
- ⑧ 기타 ( )

14. 귀 단체의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실시 주요 시간대가 어떻게 되십니까?(중복 가능)

- ① 평일 오전 ② 평일 오후 ③ 평일 야간 ④ 주말

## 부록 2. 심층인터뷰 질문지-진행강사

### 1. 민주주의, 시민

#### - 민주주의

- 민주주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민주주의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요?)
-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나와 극단적으로 너무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그러면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학교에서 옆드려 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내버려두는 것이 좋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시민

- 어떤 사람이 시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 노동자는 시민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미등록이주자(불법체류자)도 시민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시민의식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나요?

### 2. 민주시민교육

- 선생님은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할까요? (필요한가요?)
- 민주시민교육이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 민주시민교육이 다루어야 할 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요?
- 앞으로 조정하거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민주시민교육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보나요?
- 민주시민교육의 교육방식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현재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보나요?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 정부나 다른 기관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도움이 있으면 좋을까요?
-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것 같은가요?(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 민주시민교육과 일반교육프로그램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보나요?

- 최근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중입니다. 예를 들어 안보교육이나 꽃꽂이와 같은 취미교육 등도 민주시민교육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부분을 잘 보완할 방법이나 사례가 있나요?

### 3. 참여계기

- 지금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까?(프로그램 명, 참여인원 확인-대략 몇 명 정도?)
- 선생님께서는 이 단체에 언제,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었나요?
- 언제부터 민주시민교육을 강의하였나요?
- 따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셨습니까?
- 해당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나요?
- 강의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반영하나요?(민감한 내용이 제기될 때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 해당 프로그램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활동가, 일반인, 학생 등)?
- 대상별로 어떤 특징이 있나요? 어떤 대상으로 할 때 프로그램 운영이 잘되는 것 같은가요?
- 운영기간(교육주기)은 어떻게 되나요?

### 4.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 진행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는 무엇인가요? 또한 준비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 참여자들에게서 기획의도에 따른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나요?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콘텐츠 발굴은 어떻게 하나요? 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방식은 어떤 방식인가요, 그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준비할 때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잘되는 경우와 잘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나요?(이유는 무엇인가요?)
- 진행중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까?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강의역량은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나요?(강의역량을 올리기 위해 따로 받는 교육이나 준비하는 것이 있나요? 강의역량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강의역량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 그 외 프로그램 운영상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이 프로그램 외에 진행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강의를 있습니까(동일한 프로그램인가, 다른 프로그램인가)?
- 선생님께서 더 비중을 두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강의를 잘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나요?(본 단체 프로그램인지 다른 단체 프로그램인지 확인),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운영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강의하면서 불편이나 불만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그 문제를 보완할 방법이나 보완했던 사례가 있나요?
- 단계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선생님이 보시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참여한다고 생각하나요?)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부여하고 있나요? 이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수강 이후, (가령 강사 활동이라든가)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 프로그램을 강의하면서 참여자수의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있다면 변화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참여한다고 생각하나요?)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피드백은 어떻게 하나요? (결과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 프로그램의 개선 및 변화주기는 어떠한가요?
- 혹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주제? 내용? 이 있나요?

## 5. 관계

### - 강사-참여자

- 긍정적 참여자와 부정적 참여자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부정적 참여자 사례의 경우 어떻게 대처하나요?
-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강사와 그렇지 않은 강사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요?
- 참여자들의 의견이 엇갈릴 때 (주제에 대해서가 아니라 운영방식이나 절차 등 사소한 것 관련하여) 어떻게 조정하나요?

- 참여자-참여자

- 프로그램 주제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런 참여자들의 반응이 프로그램 참여 및 지속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가요?
-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사표현을 얼마나 활발히 하나요?
- 다른 참여자들은 그런 의사표현에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 프로그램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가 있나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외에 개인적으로 모임을 갖나요?
- 갖는다면 어떤 식의 모임을 가지나요?
-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실제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나요?

## 6. 기타

- 민주시민교육 관련 일을 하면서 개인적 보람을 느꼈던 적이 있나요?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7. 제언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이나 제언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 부록 3. 심층인터뷰 질문지-참여자

#### 1. 민주주의, 시민

##### - 민주주의

- 민주주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민주주의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요?)
-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나와 극단적으로 너무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그러면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학교에서 옆드려 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이 좋을 까요, 아니면 내버려두는 것이 좋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시민

- 어떤 사람이 시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 노동자는 시민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미등록이주자(불법체류자)도 시민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시민의식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 2. 민주시민교육

- 선생님은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할까요? (필요한가요?)
- 민주시민교육이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 민주시민교육이 다루어야 할 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요?
- 앞으로 조정하거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민주시민교육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보나요?
- 민주시민교육의 교육방식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현재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보나요?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 정부나 다른 기관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도움이 있으면 좋을까요?
-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것 같은가요?(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 민주시민교육과 일반교육프로그램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보나요?
- 최근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중입니다. 예를 들어 안보교육이나 꽃꽂이와 같은 취미교육 등도 민주시민교육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부분을 잘 보완할 방법이나 사례가 있나요?

### 3. 참여계기

-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나요, 대략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인가요
-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인가요
- 어떤 계기로 단체 혹은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나요?
- 어떤 홍보나 모집공고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알고 참여하게 되었나요?
- 해당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주로 누구인가요?(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가요?)
- 해당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다른 사람들이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본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은 알고 있나요?
-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지금 프로그램과 같은 점이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지금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관심 있는 다른 프로그램(본 단체)이 있나요?(이유)
- 다른 단체의 프로그램 중 관심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관심가는 이유와 참여하지 않는 이유,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계기, 주제 내용)
- 해당 프로그램의 기획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참여자들에게 그) 기획 의도에 따른 결과나 나타났다고 생각하나요?
- 프로그램 참여와 별도로 주관 단체를 신뢰하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 4.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참여자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식으로 제시하나요? (어떤 내용을 제시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시된 의견은 반영되는 것 같나요,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 것 같나요?)

- 프로그램 운영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까?
- 프로그램 운영이 잘되게 하기 위해 단체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준비는 어떤 것 같은가요? 또 다른 부분은 없나요?)
-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이후 다른 유사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나요, 혹시 그렇다면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혹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유사한 사회문제를 접하면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직접 실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 이 프로그램 수업을 마친 후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나요?
- 지금 듣고 있는 프로그램의 단계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부여하고 있나요? 이에 대한 참여자의 생각은 어떤가요?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수강 이후, (가령 강사 활동이라든가)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 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혹시 다른 단체의 프로그램에 실망한 적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다른 단체 프로그램 참여 경험자)
- 운영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불편이나 불만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그 문제를 보완할 방법이나 보완했던 사례가 있나요?
- 혹시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민주시민교육이 있나요?

## 5. 관계

### - 강사-참여자

- 어떤 강사가 좋은가요
- 일반적으로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강사와 그렇지 않은 강사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요?
- 강사들이 좋아하는 참여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 혹시 (강사나 다른 참여자에 대한 불만 등으로)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중단했거나 힘들었던 적은 있었나요?(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참여자들의 의견이 엇갈릴 때 (주제에 대해서가 아니라 운영방식이나 절차 등 사소한 것 관련하여) 어떻게 했나요?



- 참여자-참여자

- 프로그램 주제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런 참여자들의 반응이 프로그램 참여 및 지속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가요?
-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사표현을 얼마나 활발히 하나요?
- 다른 참여자들은 그런 의사표현에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실제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준 경우가 있나요?(사례)
- 프로그램에는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 있나요?(어느 정도 되나요?)
- 알고 있던 사람의 존재유무가 프로그램 참여에 영향을 미치나요?
- 프로그램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가 있나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본인은 처음 참여할 때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나요?
-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외에 개인적으로 모임을 갖나요? 어떤 모임인가요?
- 단순히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인가요,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하나요?
-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 다른 참여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프로그램 진행을 방해하는 참여자를 본 적이 있나요?
- 그 참여자는 어떤 식으로 불편하게 했나요, 이후 어떻게 되었나요?
- 그런 참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6. 기타**

- 민주시민교육 관련 일을 하면서 개인적 보람을 느꼈던 적이 있나요?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7. 제언**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이나 제언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민주시민교육 연구보고서 2020

## 부산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https://www.kdemo.or.kr>  
연락처 031-361-9500 /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발행인 지 선  
발행일 2020년 12월 24일  
기획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센터  
제작 (주)폴인사이트  
I S B N 979-11-87593-71-3

연구책임자 진시원 | 부산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김주영 | 동서대학교 관광학부 강사  
서희원 |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  
이동문 |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연구보조원 이슬기 | 시민교육실험실 '해' 연구원

연구수행기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